

**COVER STORY**

미스터리 매직 퍼포먼스 '스냅'

**COLUMN**

영혼의 지도

골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어린이 전문서점 책과 아이들



미스터리 매직 퍼포먼스 '스냅'

# 제10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 가곡과 아리아의 밤 -



예술감독 오충근(지휘)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

협연 김성은(소프라노)

이지영(메조소프라노)

전병호(테너)

김기훈(바리톤)

특별출연 용마코러스

## Program

김주원 ·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김효근 ·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베르디 · 오페라 리골레토 주요 아리아 외 수곡



2021. 5. 18(화) 7:30pm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문의 <sup>(사)부산사람</sup> 이태석기념사업회 www.johnlee.or.kr 051.637.0125

특별후원 **BNK** 부산은행

후원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MBC** **부산광역시 대표방송 KNN**

무료관람 응모 **NAVER** 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www.johnlee.or.kr](http://www.johnlee.or.kr) **추첨 후 개별통지**

\* 나눔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본 음악회는 예술인 재능기부 공연입니다.



예술감독 이정민  
부산시립무용단 제 83 회 정기공연

本色 춤

# 본색

2021. 5. 27 목 ~ 28 금 오후 8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BPO OPEN REHEARSAL CONCERT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2021. 5. 25 TUE 7:30 PM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Busan Citizen's Hall


베를리오즈 • 환상교향곡

Berlioz • Symphonie Fantastique in C major, Op.14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2층 일반석 5,000원

예매 [www.bscc.or.kr](http://www.bscc.or.kr)

문의 607-6000(ARS 1번)



제575회 정기연주회

# PASSIONS

열정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2021. 5. 27<sup>THU</sup> 7:30<sup>PM</sup>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Busan Citizen's Hall

하콜라 · 클라리넷 협주곡  
Hakola · Clarinet Concerto

베를리오즈 · 환상교향곡  
Berlioz · Symphonie Fantastique in C major, Op.14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최수열 Soo-Yeoul Choi, conductor  
클라리넷 김한 Han Kim, clarinet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 20,000 · S 15,000 · A 10,000 · B 5,000 예매 [www.bscc.or.kr](http://www.bscc.or.kr) 문의 607-6000(ARS 1번)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축다례연

# 辛丑茶禮宴



다례총감 최순애  
사)한국다도대학원 부산분원장



시조 이아미



독무 김도은



지휘 김정수

처용무 부산시립무용단

## 1부 기로다연 耆老茶宴

- 풍류수제천 風流壽齊天
- 처용무 處容舞

## 2부 접빈다례 接賓茶禮

- 중광지곡 重光之曲
- 평시조 <오늘이 오늘이소서>
- 독무 <내비야 청산 가자>

2021. 5. 7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CONTENTS

## 05

월간문화예술정보지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예술의 초대 May 2021 Vol.353

2021년 5월호 통권 353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용관  
**편집인** 최용부  
**편집위원** 동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현, 정두환,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홍보팀장** 서정환  
**편집장** 정복엽  
**발행일** 2021년 4월 25일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 08 **Cover Story**  
미스터리 매직 퍼포먼스 '스냅'
  
- 12 **Column**  
영혼의 지도
  
- E 14 **음악과 함께 떠나는 세계 박물관 여행 ④**  
음악이 인간에게 주는 놀라운 힘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 18 **골목에서 만나다\_생활 속 문화공간**  
동심과 초심으로 어린이문학을 즐긴다  
어린이 전문서점 책과 아이들
  
- 20 **Academy Class**  
아티스틱한 미술이 선사하는 판타스틱한 삶  
ARTISTIC FANTASTIC 미술사
  
- 23 **Preview**
  
- 28 **Issue**  
제17회 부산국제무용제  
춤의 꿈결, 꿈의 물결
  
- 30 **Review**
  
- 36 **Program Guide**
  
- 50 **New Book**
  
- 51 **BSCC News**
  
- 54 **이주임의 24시**  
부산문화회관의 '첫인상'을 책임지는  
시설운영팀



SUN	MON	TUE	W
<p><b>1</b></p> <p><b>안림</b>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예정되었던 공연이 취소, 혹은 연기되고 있습니다. 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 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b>2</b></p> <p><b>부산문화회관 전시실</b> 한국추사서화에술전국공모대전 5월 8일(토)-5월 10일(월) 한국추사서예가협회 632-7077</p> <p>제41회 전국서도민전 5월 22일(토)-5월 26일(수) (사)한국서도예술협회 441-7081</p> <p>2021 부산회화제 5월 31일(월)-6월 5일(토) (사)부산미술협회 632-2400</p>		
<p><b>2</b></p> <p>제겐 피아노 듀오 제2회 정기연주회 17:00 <b>중</b>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b>3</b></p>	<p><b>4</b></p>	<p><b>5</b></p> <p>어린이뮤지컬 '더퀸_선덕' 11:00, 14:00, 16:30 <b>중</b> 전석 4만원/㈜플레이</p>
<p><b>9</b></p> <p>UKO오케스트라 제50회 사랑나눔음악회 '시벨리우스&amp;모차르트' 17:00 <b>대</b> 전석 2만원/UKO오케스트라(988-3087)</p>	<p><b>10</b></p>	<p><b>11</b></p> <p>부산시립예술단 꿈꾸는 예술학교 '재밌는 국악 신나는 국악' 10:30 <b>챗</b>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p>	<p><b>12</b></p> <p>부산시립예술단 꿈꾸는 예술학교 '재밌는 국악 신나는 국악' 10:30 <b>챗</b>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p>
<p><b>16</b></p>	<p><b>17</b></p>	<p><b>18</b></p> <p>제10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19:30 <b>대</b> 초대(예약 후 추천)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637-0125)</p> <p>이윤지 피아노 리사이틀 19:30 <b>챗</b>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b>19</b></p>
<p><b>23</b></p>	<p><b>24</b></p>	<p><b>25</b></p>	<p><b>26</b></p>
<p><b>30</b></p> <p>장애인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동행음악회 시즌2' 17:00 <b>예</b> 초대/UKO오케스트라(988-3087)</p>	<p><b>31</b></p>		<p><b>31</b></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10:00, 14:00 <b>중</b> (재)부산문화회관(607-3113)</p>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WED	THU	FRI	SAT
			1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1 BSCC 시네 오페라 초이스 '메트로폴리탄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15:00 중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첼버홀 손혜림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17:00 첼 전석 2만원/아트락(010-5468-4658)</p>
5	6	7	8
<p>여왕의 귀환' 부산(1600-0316)</p>	<p>루체살레 창단연주 '한국사랑 가곡사랑' 19:30 중 전석 1만원/루체살레(010-5015-9215) 2021 부산음악축제 I '신인음악회' 19:30 첼 무료/(사)부산음악협회(634-1295)</p>	<p>◆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신축다례연' 19:30 대 1만원-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21 부산음악축제 II '양상블의 밤' 19:30 첼 무료/(사)부산음악협회(634-1295)</p>	<p>소프라노 박하나 독창회 15:00 중 전석 2만원/유니코(02-532-4876)</p>
2	13	14	15
<p>예술학교 '재밋는 국악 신 앙팀(607-3113)</p>	<p>◆ 부산시립합창단 제181회 정기연주회_뮤지컬 칸타타 '아! 나의 조국!' 19:30 대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시립예술단 꿈꾸는 예술학교 '재밋는 국악 신 나는 국악' 10:30 첼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p>	<p>◆ 부산시립합창단 제181회 정기연주회_뮤지컬 칸타타 '아! 나의 조국!' 19:30 대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시립예술단 꿈꾸는 예술학교 '재밋는 국악 신 나는 국악' 10:30 첼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p>	<p>스승의 날 기념 코리아 첼버 브라스 '비틀즈와 퀸의 만남' 17:00 대 5만원-3만원-2만원/부산문화(1600-1803)</p>
9	20	21	22
	<p>부산예술고등학교 제33회 음악정기연주 19:00 대 무료/부산예술고등학교(514-1232)</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스냅(SNAP)' 14:00, 19:30 중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시립예술단 꿈꾸는 예술학교 '교실 밖 합창 여행' 10:30 대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p> <p>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21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19:30 중 전석 2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제35회 부산청소년예술제 '부산청소년음악제' 19:30 첼 무료/(사)부산음악협회(634-1295)</p>	
6	27	28	29
<p>연 '스쿨 온 스테이지' 7-6000)</p>	<p>◆ 부산시립무용단 제83회 정기공연 '본색' 20:00 대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부산시립무용단 제83회 정기공연 '본색' 20:00 대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BSCC 인문학+ 콘서트:향연-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11:00 중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제2회 베이스바리톤 박순기 독창회 19:30 첼 아트내상스(010-9204-5854)</p>	<p>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58회 정기연주회 창작합창뮤지컬 '제비먼' 19:30 대 전석 2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소프라노 김미정 독창회 '吟味... 音美!' 19:00 중 전석 2만원/브릴란데 오페라먼트 (508-0459)</p>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2021 부산초대사진가회**  
5월 6일(목)-5월 9일(일) 제1전시실  
부산초대사진가회 010-5126-6686

**reminiscence**  
5월 7일(금)-5월 9일(일) 제2전시실  
reminiscence 010-6775-4600

**김태선 개인전**  
5월 11일(화)-5월 18일(화) 제1전시실  
김태선 010-5270-0981

**제1회 정수비 공예 개인전**  
5월 15일(토)-5월 21일(금) 제2전시실  
정수비 010-5811-8161

**박용우 개인전**  
5월 19일(수)-5월 23일(일) 제1전시실  
박용우 010-3911-5902

**2021 부산청소년예술제  
청소년 꽃다발만들기대회**  
5월 29일(토) 제1전시실  
부산꽃예술작가협회 010-3842-7948

**2021 부산청소년예술제  
학생사진공모전**  
5월 24일(월)-5월 28일(금) 제1전시실  
부산사진작가협회 631-4111

SUN	MON	TUE	WED
<p><b>2</b></p> <p>뮤지컬 '흔한남매_엄마의 꿈을 지켜라!' 11:00, 14:00                      대 6만원·5만원/동그라미그리기(1577-4868)</p>	<p><b>3</b></p>	<p><b>4</b></p>	<p><b>5</b></p>
<p><b>9</b></p>	<p><b>10</b></p>	<p><b>11</b></p>	<p><b>12</b></p> <p>라이온스 창립 50주년 기념 15:30                      대 국제라이온스협회 352-0000</p>
<p><b>16</b></p>	<p><b>17</b></p>	<p><b>18</b></p>	<p><b>19</b></p> <p>극단 누리에 '검은 입김의 날' 공연                      소 극단 누리에(621-3500)</p>
<p><b>23</b></p> <p>부처님 오신날 특집 트로트 콘서트 14:00                      소 한국공연기획제작가협회 부산지회 (010-9049-0016)</p>	<p><b>24</b></p>	<p><b>25</b></p> <p>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미완성 음악회Ⅳ'                      대 전석 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b>26</b></p>
<p><b>30</b></p> <p>제35회 청소년 예술제 '청소년 무용공연' 17:00                      대 (사)부산무용협회(632-5116)</p>	<p><b>31</b></p>	<p><b>1</b></p>	<p><b>2</b></p> <p>부산시민회관 2021 부산                      매시시 명품극장 '아빠들                      소 무료(사전예약 필수)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WED	THU	FRI	SAT
			<p>1</p> <p>뮤지컬 '흔한남매_엄마의 꿈을 지켜라!' 11:00, 14:00, 16:30                      대 6만원·5만원/동그라미그리기(1577-4868)</p>
5	6	7	8
		<p>2021 시민뜨락축제 12:20                      야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21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 09:00                      스키 세계문화진흥협회(010-7767-7462)</p>
2	13	14	15
<p>기념식 및 라이온스 가요제                      55-A부산(642-3606)</p>		<p>2021 시민뜨락축제 12:20                      야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9	20	21	22
<p>'이산' 19:30                      573)</p>	<p>극단 누리에 '검은 입김의 산' 19:30                      스키 극단 누리에(621-3573)</p>	<p>2021 시민뜨락축제 12:20                      야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한국방송문화예술대상 시상식, 부산국제가요제 13:00                      대 (취한아방송(1670-7894)</p>
6	27	28	29
<p>부산 문화가 있는 날                      '19:00                      7-6000)</p>	<p>부산시립교향악단 제575회 정기연주회 '열정' 19:30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기 구라모토 콘서트' 19:30                      대 7만원·5만원·3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2021-22 시즌프로그램  
지역 우수공연 초청 시리즈

미스터리 매직 퍼포먼스

# SNAP

2021. 5. 20<sup>(목)</sup>

오후 2:00,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권 R석 3만원, S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세련된 일루전, 채플리니스크한 코메디, 클래식한 서커스 \_The New York Times  
오직 진짜 마법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다 \_Broadway World  
놀라운 환상을 통해 모두에게 기쁨을 준다 \_Mumble Cirque  
스냅은 믿기지 않는 최고 중의 최고인 마술공연 \_Broadway Baby

2019 뉴욕 브로드웨이 42번가 뉴빅토리 극장 초청작  
2018 캐나다 시나르 비엔날레 공식 초청작  
2016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페스티벌 '베스트 프로덕션' 수상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재)부산문화회관이 가족관객을 위한 미스터리 매직 퍼포먼스 <스냅 SNAP>을 선사한다. 2021-22 시즌 프로그램의 지역 우수공연 초청 시리즈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부산을 기반으로 성장해 전 세계인을 사로잡는 공연예술단체로 발돋움한 ‘그루잡 프로덕션’이 제작한 작품이다. 신기한 마술을 매개로 마임, 웨도우그래피, 미디어아트, 신체극 등을 동화적인 스토리텔링과 결합한 언버벌 퍼포먼스로, 세계마술대회(FISM)에서 수상한 실력과 마술사들이 출연한다. 특히 마술사를 부각시키는 일반적인 마술 공연과 달리 마술을 관객들의 상상력과 미스터리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창의적인 마술에 초현실주의적 무대장치와 영화적 특수효과를 결합시켜 관객들에게 극적 몰입을 제공하면서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넘나들게 한다.

### 세계적인 공연축제와 아트마켓에서 호평받은 작품

<스냅 SNAP>은 지난 2016년 초연무대를 가진 후 그 해,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해 당시 더 헤럴드(The Herald), 브로드웨이 베이비(Broadway Baby) 등 영국의 주요 언론으로부터 극찬을 받으며, 세계적인 평론지 브로드웨이 월드(Broadway World) 선정 ‘최우수 마술공연’으로 꼽혀 아시아 최고의 공연에게 주어지는 ‘아시아 아츠 어워즈’를 수상했다. 이듬해인 2017년 에든버러 양코르 공연에서도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이름을 알려나가던 ‘스냅’은 2018년, ‘공연계의 칸느영화제’라 불리는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아트마켓인 캐

나다 ‘시나르(CINARS) 비엔날레’에 초청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특히 서커스/다원예술 장르에서는 한국 최초로 시나르 무대에 오르면서 기존 마술의 장르적 한계를 뛰어넘는 예술성과 작품성을 보였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 꿈의 무대, 미국 브로드웨이까지 진출

2019년에는 꿈의 무대라 불리는 미국 브로드웨이로 진출한 <스냅 SNAP>은 브로드웨이의 유서깊은 극장이자 현재 가족극 전문극장으로 유명한 뉴빅토리극장의 초청을 받아 총 21회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이 기간 동안 ‘스냅’은 95.7%의 놀라운 객석점유율을 보이며 뉴빅토리극장의 2018-2019 시즌 공연 중 객석 최고 점유율을 보인 공연 중 하나로 꼽힌 바 있다. 당시 미국 뉴욕타임즈는 <스냅 SNAP>에 대해 ‘세련된 일루전(환상), 찰리 채플린과 같은 코미디, 클래식한 서커스 예술을 통해 70분간 환상을 펼친다’고 극찬했다.

### 온 가족을 위한 미스터리 매직 퍼포먼스!

<스냅 SNAP>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토리 구성이 탄탄한 매직 공연이다. 수많은 복선을 통해 서서히 이야기를 풀어가는 미스터리적 요소와 각 장면마다 관객을 몰입시키는 서스펜스 구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극적 환상과 재미를 전한다. 공연은 장난을 좋아하는 기이한 능력을 지닌 트릭스터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봉인된 문을 만나면서 시작된다. 트릭스터들의 만행이자 호기심 많고 관찰력이 뛰어난 코비, 덩치 크고 힘이 세지만 가장 겁이 많은 둘째 벤,



장난이 심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막내 로이까지 세 명의 트릭스터는 우연히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된 그 곳에서 숲의 정령과도 같은 플로리스트, 괴짜 과학자 오드볼, 꿈을 통해 위로와 행복을 전하는 드리머 등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며 의도치 않은 변화를 만들어낸다.  
<스냅 SNAP>을 제작한 그루잠 프로덕션은 전 세계 남녀노

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콘텐츠인 '마술(Magic)'을 기반으로 한 다원예술공연 제작단체로, 세계마술대회(FISM) 우승자 및 입상자를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 한국을 대표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관극 개발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대표작인 <스냅 SNAP>을 통해 '2019 예술경영 대상(문체부 주체)' 우수 전문예술단체·법인으로 선정됐다.

할인 안내

할인율	할인명	내용	티켓교부 방법
50%	복지	- 장애인(1-6급, 본인) - 국가/독립유공자(본인) - 의·사상자(본인)	※ 티켓수령시 증빙카드 확인 -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증 - 정기회원카드 -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무원증 및 기타 교직원 증빙서류
	예술인패스	예술인패스 소지자(본인)	
	초·중고 교사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초·중고 교사(본인)	
30%	정기회원	유료회원(등급별 매수 제한)	
	학생	초·중고·대학생(본인)	
	단체	10인 이상 단체예매 시	

※ 본 공연은 동반자 외 띄어앉기로 진행됩니다.





2019 브로드웨이 42번가  
뉴빅토리 극장 공식 초청작



미스터리 · 퍼포먼스 · 스냅

2021. 5. 20(목) 오후 2시,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영혼의 지도

권은영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올해는 벚꽃이 순간 만개하더니 단 며칠 만에 꽃비가 나리면 서 초록 잎이 무성해지기 시작한다. 음력 3월, 봄이 무르익어 간다. 음력 3월은 주역 64괘중 택천괘(澤天夫)의 기운을 뿜어내는 달이다. 택천괘괘는 하늘위에 연못이 있는 괘상으로 연못이 하늘 위에 올라 기운이 차서 넘치고 강함이 약한 것을 결단하는 형상이다. 우거진 신록과 향기로운 풀이 꽃보다 나은 때라는 '녹음방초승화시(綠陰芳草勝花時)'가 절로 떠오른다. 꽃을 이기고 돌아나는 녹음의 향연, 이 또한 아름답지 아니한가!

이런 풍경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다. 하늘에 구

름 한 점 없이 대기가 맑은 날 봄바람이 따스하게 불고, 높은 산과 가파른 고개, 무성한 숲과 길게 자란 대나무가 있는 정원이 펼쳐진다. 어디선가 맑은 눈을 한 못 현사(賢師)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고 이들은 굽이굽이 돌아 흐르는 유상곡수(流觴曲水) 주변에 자리 잡고 앉는다. 유상곡수에 술잔이 띄워지고 술잔이 자기 앞에 이르면 술을 마시고 난 후 시를 지어 읊조린다. 시를 지어내지 못해 벌주로 술 서말을 마시는 선비의 모습도 보인다. 서예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중국 동진의 서예가 왕희지의 정원인 난정(蘭亭)에서 열렸던 특별한 주회의 한 장면이다.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워 자기 앞에 술잔이 이르면 마시고 시를 짓는 놀이인 유상곡수의 전통이 시작된 바로 이 주회에서 천하제일행서(天下第一行書)인 '난정서(蘭亭序)'가 탄생하게 된다. 만취한 왕희지가 주회에서 지어진 시들을 모아 만든 시첩의 서문을 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당태종이 사랑해 마지않았던, 그리고 왕희지 자신도 탄복했던 바로 그 난정서이다. 난정서는 글씨도 글씨려니와 빼어난 문장으로도 마음을 사로잡는다. 난정서는 탁천쾌의 호방함이 내면으로 향하면서 자기 본연에 대한 사색과 성찰로 이어진다.

“우러러 우주의 넓음을 관망하고 굽혀서 만물의 풍성함을 살펴보니, 상념의 나래를 펼치기도 하고 보고 듣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니 실로 즐겁기 그지 없었노라... 무릇 인간이 더불어 한 세상을 살아감에, 어떤 사람은 방 안에서 서로 생각을 나누며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연에서 유유자적 살아가기도 한다. 비록 취향은 만 가지로 다르고 성격에 따라 조용함과 시끄러움이 같지 않지만, 각기 처한 경우가 마음에 드는 때를 만나면 잠시 자신의 뜻을 얻은 양 우쭐하고 스스로 양연히 만족하여 곧 늙음이 닥쳐오는 것조차 모르고 지낸

다. 그러나 곧 그 즐거움에도 권태가 찾아오기 마련이니, 권태로운 감정은 일을 따라 옮겨가서 결국에는 감회만 남게 된다. 지난날 즐겼던 일이 잠깐 사이에 옛 자취가 되어버리니 감회가 생기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음이라. 하물며 수명이 짧은 길든 자연의 조화를 따라 결국에는 그 생명을 다할 날이 있음에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야 말로 인생의 중대한 일이다’라고 했으니 어찌 애통하지 않을 수 있으리. 그러므로 옛 사람들이 감회에 젖었던 까닭을 살펴볼 적마다 마치 계인(契印)이 하나로 꼭 들어맞는 것과 같아, 옛 문장을 대함에 탄식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감회를 어디다 비유할 수가 없구나. 후세 사람이 지금의 우리를 보는 것도, 지금 우리가 옛날 사람을 보는 것과 같으리니, 슬프도다!”

‘Map of the soul’이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타이틀이라고 한다. 용이 말하는 페르소나에서 셀프로 향하는 인간 내면의 여정이 왕희지의 난정서에서도 그려지고 있는 것 같다. 감회로부터 시작되는 영혼의 종착역은 ‘계인(契印)이 하나로 꼭 들어맞는 것과 같이 동서고금이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





## 음악이 인간에게 주는 놀라운 힘

#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이장직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총괄연구원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은 1819년 11월 19일 스페인 왕립 회화 및 조각 박물관으로 문을 열었다. 식민지 무역으로 16-17세기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누렸던 스페인의 전성기 시절을 짐작케 할만큼 방대한 컬렉션을 자랑한다. 12세기부터 20세기 초에 해당하는 작품들이다. 마드리드에는 국립미술관이 두 개 더 있는데 티센보르네미사 국립미술관은 19세기와 20세기, 레이나 소피아 국립미술관은 인상파 이후 20세기의 유럽과 미국 작품을 중심으로 꾸몄다. 프라도 미술관의 건물은 1785년 카를로 3세의 명으로 자연사 박물관으로 지었으나 손자 페르디난도 7세가 왕비 마리아 이사벨라의 권유로 미술관으로 바꿨다. 현재 소장 작품은 드로잉 8,200점, 회화 7,600점, 판화 4,800점, 조각 1,000점 등이다.

라몬 바이유(1744-1793)의 '시각장애인 악사'(1786)는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각지에서 흔히 출몰한 방랑악사를 화폭에 담았다. 요즘에야 시각장애인도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해 뛰어난 기량을 뽐내고 있지만 당시에







1 라몬 바이유\_시각장애인 악사

는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는 것은 곧 가난을 의미했다. 평생 걸인 신세로 지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들은 시각 대신 발달한 청각 덕분에 음악에 뛰어난 소질을 보였는데 바깥에서도 잘 들리면서도 연주하기도 쉬운 허더 거더를 주로 연주했다.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돌리면 안에 있는 나무 원통이 돌아가면서 현과 마찰을 일으켜 투박한 소리를 낸다.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림에 나오는 소년이 악사의 도우미다. 양손에 들고 있는 캐스터네츠로 리듬 파트를 연주하는 소년은 강아지와 짝을 이뤄 재주도 피우면서 행인의 이목을 끄는 유인책이다.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춘 ‘청중’이 애잔한 음악 소리에 감동해 동전 몇닢을 던져주는 것은 전적으로 악사의 연주에 달려있다. 이들 ‘3인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마을 축제나 잔치가 열리는 곳이면 어디든 발길을 옮겨야 한다. 마음 먹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지만 매일같이 정처없이 떠돌

아 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었다.

방랑악사의 연주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음악은 공짜로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들이 떠돌이 악사들에게 일종의 동질감을 느낀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적어도 바이유의 그림에서는 맹인 악사에 대한 동정심보다 경외심이 느껴진다. 낡긴 했지만 망토 안에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이나 탁 트인 하늘 아래 약간 높은 곳에 자리잡은 그의 모습은 마치 한 명의 위대한 예술가를 기리는 기념 조각상 같은 풍모를 자아낸다. 연주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신분이 비천하다고 해서 음악이 인간에게 주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음악에는 귀천이 없는 법 아닌가. 그런 점에서 바이유의 그림은 떠돌이 걸인 악사를 그린 다른 많은 그림과는 사뭇 다르다.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는 올빼미가 발 아래 악보를 걸어두





2 프랑스 스니데르스 새들의 음악회 3 루벤스와 브뤼헬 청각

고 전 세계에서 온 각양각색의 새 열 다섯 마리가 연주하는 합창을 지휘한다. 17세기 초 네덜란드에서는 '새들의 음악회'라는 제목의 그림이 크게 유행했는데 프란스 스니데르스가 대표적인 화가이다. 프라도 미술관에도 비슷한 그림이 여럿 소장되어 있다. 16세기부터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가 새들과 함께 있는 장면이 그려진 그림을 창문이나 출입구 위에 걸어놓는 풍습이 북유럽에서 시작되어 스페인까지 전파되었다. 전설에 의하면 13세기 브뤼셀 교외의 한 너도밤나무 가지에 새떼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사이로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보였다. 이 기적을 기리기 위해 근처에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성당을 세웠고 지붕에 새장을 매달아 놓았는데, 미사에서 찬양할 때 새들도 함께 합창했다는 얘기가 전해온다. 현재는 프란치스코 수도회 피정의 집으로 사용 중이다.

'새들의 콘서트'를 벽에 걸어놓은 컬렉터의 심리는 무엇일까. 탁트인 자연, 새처럼 창공을 날아다니는 자유를 동경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올빼미의 지휘와 악보에 따라 노래하는 자연의 질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치적, 사회적 질서를 꿈꿨을 가능성이 높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처럼 음색은 각기 다르지만 한데 모여 거대한 교향악을 연주하듯이 말이다. 그림에서 독수리처럼 큰 새들이 가

장자리에 자리잡고 가운데 작은 새들을 보호하는 듯한 모습도 인상적이다. 독수리는 새의 제왕이지만 그림에서는 교만의 상징이다.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지만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보지 못한다. 지휘를 맡은 올빼미는 미네르바로 불리기도 하는 아테나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밤에도 볼 수 있어 깨어있는 지식인을 뜻한다.

화가들은 대형 작품에서 공동 작업을 하기도 한다. 각자가 잘 그리는 부분을 맡는 것이다. 매우 친한 친구 사이였던 루벤스와 브뤼헬은 1617년과 1618년 안트페르펜에서 오감에 해당하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시리즈로 화폭에 담아냈다. 모두 프라도 미술관이 소장 중이다. 미각, 청각, 촉각을 한꺼번에 그려낸 그림도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과 청각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당장 오늘이라도 조물주가 나타나 시각과 청각 중 하나를 반납하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 눈과 귀의 기능 중 하나를 잃게 된다면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아직 구경할 게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면 시각을 남길 것이고 아직도 들어볼 음악이 태산 같다면 청각을 택할 것이다.

루벤스와 브뤼헬 콤비의 오감 시리즈 중 '청각'에는 누드 차림의 비너스가 리라를 연주하면서 큐피트와 함께 노래



하고 있다. 원탁 위에는 방금 여러 사람들이 연주하고 자리를 비운 것처럼 악보가 놓여 있고 건반악기, 현악기도 보인다. 비너스 옆의 수사슴도 청각을 상징한다. 음악을 좋아해 곁에 앉아 음악에 귀를 쫓긋 기울이고 있다. 사슴의 귀는 크고 곧아서 어떤 방향에서 오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 벽면을 장식한 그림들도 청각에 관한 것이다. 오른쪽 위에는 ‘음악으로 맹수들을 달래는 오르페우스’, 왼쪽 위에는 ‘뮤즈 신들의 연주회’, 클라비코드 덮개에는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이 그려져 있다.

‘펠리페 5세의 가족’은 프랑스의 화가 집안에서 태어나 1736년-1753년 펠리페 5세의 공식 궁정화가를 지낸 루이 미셸 반루(1707-1771)의 작품이다. 파리에 있을 때 그는 루이 15세의 초상화 작가로도 유명했다. 궁정화가의 임무 중 하나가 왕실 구성원들의 초상화를 그리는 일이다.

그림에서 파르마 공국 공주 출신의 두 번째 왕비 엘리자베타 파르네세를 중심으로 왕자와 공주들이 주위에 자리잡았다. 루이 14세의 손자이자 부르봉 왕가의 초대 국왕인 펠리페 5세도 옆에 앉아 왕비의 눈치를 살피는 중이다. 왕비의 왼손을 왕관 가까이 덩그러니 그녀의 막강한 영향력을 암시한다.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사보이 공주 출신의 전처 마리아 루이사에게서 낳은 넷째 아들 페르난도 6세다. 펠리페 5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황태자이다. 나머지는 그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할 카를로스 3세 부부와 그 후손들이다. 카를로스 3세는 엘리자베타의 첫째 아들로 나폴리아와 시칠리아 국왕을 거쳤다. 페르난도 6세보다 세 살 어리

다. 엘리자베타는 스페인식 이름 이사벨라로 불렸다. 그때까지 살아남은 왕실 가족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화가는 각자의 개성을 살려 표정이나 시선을 각기 다르게 처리했다.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미화하지는 않고 있다. 가로 520cm, 세로 408cm 크기의 왕실 가족 초상화이지만 우리가 이 그림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이 발코니에서 악사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공간은 탁트인 야외도 아니고 그렇다고 답답한 실내도 아니다. 멀리 정원의 나무도 보이고 하늘 위의 구름도 보이는 곳이다. 이들은 악사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음악을 어찌 보면 지루하고 따분하기도 한 이들의 궁정 생활에 활기를 주는 배경음악, 아니면 우울증 치료제 정도로 취급했는지도 모르겠다. 1723년, 1738년에 다른 궁정 화가들도 ‘펠리페 5세의 가족’이라는 그림을 그렸지만 여기에는 악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4 루이 미셸 반루\_펠리페 5세의 가족





동심과 초심으로 어린이문학을 즐긴다

# 책과 아이들

어린이 전문서점



박나무 자유기고가

양계장 울타리 안에서 생명 없는 알만 낳던 닭, 잎삭은 늘 새 삶을 꿈꾼다. 스스로를 괴롭혀 비쩍 마른 몸이 되어서야 탈출에 성공한 암탉. 세상은 평화롭지도 안온하지도 않은 위태함의 연속이지만, 안전한 양계장보다는 자기 삶을 살고 싶었던 잎삭은 씩씩하게 부딪힌다. 푸른 빛의 알을 품어 태어난 초록머리의 엄마가 되고, 튼튼한 날개를 지닌 청둥오리로 키워낸다. 엄마와 다른 용모로 친구들에게 조롱을 받고, 천천들에게 목숨을 잃을 위기를 넘기며 성장한 초록머리는 결국 청둥오리 무리와 함께 다른 세상으로 날아가고, 잎삭은 또 다른 생명에게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동화작가 황선미가 2000년에 내어놓은 <마당을 나온 암탉>이 담고 있는 이야기. 동화이긴 하지만 많은 어른들도 읽고 보고 눈물을 흘렸다.

대기업에 다니던 김영수 부장은 자신이 닭장에서 사료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닭과 다를 바 없다는 자각을 하게 된다. 이내 사표를 내고 아내 강정아 대표가 운영하던 서점에 합류했고, 어린이 전문서점 '책과 아이들'은 그렇게 세상에 나왔다. 24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이 이 곳에서 어울려 책을 읽고 뛰어 놀았으며, 어쩌면 아이를 낳아 기르며 손 잡고 이 서점을 다시 찾기도 했으리라.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







다더니, <마당을 나온 암탉>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책과 아이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긴 시간 동안 많은 부침이 있었지만, 이제 ‘책과 아이들’은 잘 성장한 초록머리처럼 동네책방들의 파수꾼이 되어 함께 부대끼고 싸우며 힘을 키운다.

도서정가제와 지역서점인증제 등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가운데 좋은 책을 골라 주민들과 함께 읽고자 하는 동네책방들의 의지는 점차 꺾이고 있다. 큰 자본이 책 시장마저 잠식할 때 독자와 출판계에 미칠 악영향은 이미 겪고 있는 일이다. 책은 큰 출판사에서 펴내고, 작은 출판사에서 펴내는 것이다. 책은 유명한 작가도 쓰고, 무명의 작가도 쓰는 것이며, 책은 큰 서점에서 사고, 작은 서점에서 사고, 독립 서점에서 사는 것. 자본의 논리로 이런 다양성이 정리되고 나면 대형출판사의 마케팅이 정해주는 책을 몹시 비싼 값에 사봐야 할테고, 결국은 창작과 출판이 무너지는 우울한 미래가 그려진다. 좋은 책이 적절한 값에 가정에서 동네에서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잘 읽히는 것이 ‘책과 아이들’이 바라는 책세상이다.

‘책과 아이들’은 좋은 어린이책을 두고 파는 책방이지만, 누구나 들어와 책을 읽고 쉬어가는 동네사랑방이자 도서관이기도 하다. 아이들과 강아지와 고양이는 풀과 나무와 꽃이 어우러진 마당에서 자유롭게 뛰어논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에서 한 반 단위의 아이들이 나들이를 오면 옛이야기를 듣거나 빛그림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 이젠 찾아가는 ‘한 반 나들이’도 구상하고 있다 한다. 5층은 갤러리, 5월 8일까지 <태극기를 든 소녀 2> <할머니, 우리 할머니> 전시회가 열리는데, 그림마다 고통받고 싸우는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담겨있고, 또

영상도 준비된 산 교육의 장이었다. 5월 15일부터는 ‘이야기꽃 출판사 전’이 열릴터라 다양한 그림책과 원화들을 감상할 수 있다.

아이들이 어우러져 책을 읽고 느낌을 나누는 동아리가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고, 부모들이 함께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가족이 함께 하는 인문학 읽기도 진행했다. 주민기자들을 모집하여 거제1동 어른들의 어린시절을 돌아보는 <황새알마을 아이들>, ‘책과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작가들의 단편집 <자꾸 자꾸책방>도 펴냈다. 안미란 상주작가와 함께 하는 방정환전 집 읽기모임, 부산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읽고 부산을 다루는 창작집, 신화 읽기모임도 예정되어 있다. 또 옛이야기와 빛그림 이야기를 함께 펼쳐보일 구연자도 모집한다고 하니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로 성장하고픈 어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보기보다 깊고 넓은 곳이며, 생각보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곳이다. 우리도 울타리를 벗어나 새로운 책세상에 뛰어들어보자.

■문의 : 책과 아이들 051-506-1448, [cafe.daum.net/bookandkid](http://cafe.daum.net/bookandkid)  
(※일·월·공휴일 휴무)

책과 아이들 5층 평심갤러리에서는 의미있는 전시들이 열린다. 사진은 5월 8일까지 열리는 <태극기를 든 소녀 2> <할머니, 우리 할머니>展



강정아&김영수 부부는 책과 아이들의 공동대표이자 평생을 함께 책방을 일궈온 책세상의 동지다.





## 아티스틱한 미술이 선사하는 판타스틱한 삶

최근 한 일간지의 경제란에는 '샤넬백보다 더 있어 보여요 - 그래서 그림에 지갑 여는 MZ세대'라는 제목의 기사(중앙일보, 2021년 4월 13일자)가 보도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미술품을 구매한 20-30대가 전체의 52%나 되었으며, 국내에서도 벅스코에서 4월 초에 열린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를 예시하며 젊은 층의 미술품 구매와 소장 의 수치가 높아졌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술시장이 빠르게 대중화되면서 뮤지컬-오페라-비엔날레 등 각종 문화 체험 속에서 자란 세대들이 다른 레저나 스포츠 혹은 취미를 위한 소비와 더불어 미술품의 소비와 향유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대 후반의 한 직장인은 이 기사의 인터뷰에서 "(다른 분야의 소비와 비슷하게 지출되는) 미술이 상류층의 전유물이란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술문화가 이전보다 우리의 일상적 삶 속에서 그만큼 친숙해지고 다양해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간 미술이 고급문화로 간주되고 작품 가격도 비싸다고 생각되어 온 미술품을 일반인들도 구매하고 소장하게 된 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었지만, 미술에 대한 인식 변화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술품의 자발적 구매에 적극적인 사람들은 미술이 지닌 다양한 장점과 역할들을 자신의 삶 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의 명품들이 지녀왔던 위상을 이제는 미술품이 넘겨받게 된 것은, 아마 무엇보다도 미술작품들이 시각적 즐거움과 만족을 제공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대미술의 개념과 양상이


## ARTISTIC FANTASTIC 미술사

장원 예술학박사, 미술평론가

다양해졌음에도, 우리들 상당수는 심미적 만족을 미술에서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자신만의 미감과 취향에 적합한 작품들을 감상하고 수집하고 향유합니다. 이런 작품들 앞에서는 간혹 감상 차원을 넘어 무아지경을 체험하기도 하지요. 동서양의 경계를 넘어서 많은 문화권에서는 '아름다운, 미적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시각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술작품이 전달하는 시각적 즐거움은 미의 감상, 장식적 효과, 뜻밖의 놀라움으로부터 발생하는 즐거움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화에서는 '미(beauty)'가 즐겁고, 활기차고, 뛰어난 솜씨로 기교의 완벽함을 선사하고, 색채가 전달하는 조화와 균형 등에서 비롯된다고 여겨져 왔으며, 실용적 물건들에 가미된 장식의 시각적 효과는 또 다른 즐거움의 원천으로서 모든 문명권에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 엄청난 창의성을 자극했습니다. 현대미술의 경우에는 우리가 인지하거나 예상치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느끼게 되는 놀라움 또는 충격이 이전의 작품들과는 다른 미적 만족이나 즐거움을 제공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술을 통한 만족은 시각적이고 심미적인 만족으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 이외에도 사회 안에서 수많은 욕구를 지니게 되는데, 예술은 이처럼 다양하고 깊이 있고 미묘한 욕구들을 개인적 차원에서부터 공공적 차원까지 만족시키고 해소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시각예술인 미술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즐거움 이상으로, 해당 시대와 사회의 기록, 종교적 행위의 경배, 기념, 설득과 소통, 자아의 표현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창구이자 매체였습니다. 또한 현대미술은





인간의 시간과 공간 개념의 변화부터 인간과 자연의 관계, 환경과 생태의 문제, 철학적 사고의 감각적 시각화, 인지와 생명 공학에 이르기까지 미술이 전통적으로 다루어온 주제들 이외의 영역까지 확장시킴으로써 총체적 인간학을 다루는 '이미지 인문학'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미술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시대에는 오로지 고유한 재능을 부여받은 '창작자'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이런 경향이 현재까지도 우리의 인식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총체적 '이미지 인문학'으로서의 미술은 우리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삶의 어느 한 부분을 담당하는 영역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언제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활동은 구체적 형상을 그리거나 만들어내는 기법을 터득해서 아름다워 보이게 하는 숙련된 행위에만 그치지 않고, 미술품을 감상하고 판단하고 향유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이런 이유로 외국의 대학들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선택 교양과목이 미술 감상수업이나 미술사 수업이며, 수많은 교재들이 출판되고 이들 중에는 국내에까지 번역된 책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의 저변에는 모든 예술, 과학, 테크놀로지 등을 포함한 인류 문명의 모든 원천이 상상력과 창조적 사고에 놓여 있으며, 그동안 논리적 방법으로 규명되지 못한 부분을 예술적 직관이 담당해왔다는 자각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미술이 담당하는 상상력과 창조력은 수학이나 과학에서처럼 즉각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말에서는 '본다'는 단어가 거의 유일하지만, 한자

어에서는 '관(觀)', '견(見)', '시(視)' 등 다양한 보는 행위를 지칭하는 글자들이 존재하며, 서구에서도 영어를 예로 들면 'look', 'see', 'watch' 등 바라보는 행위의 다양한 방식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다'는 행위가 중요한 것은, 우리 눈의 활동이 망막에 비치는 외부 세계와 대상들을 단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 습관, 기억, 내적 욕구, 교육과 경험의 정도, 세계관과 가치관 등과 결합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각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술가들이 일반인들보다 탁월한 점은, 우리가 일상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점을 더욱 민감하고 예리한 관찰력으로 포착하고 그것을 다시금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형태로 시각화해서 제시해주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이 만든 작품을 본다는 것, 또는 미술사를 배운다는 것은 단지 미적인 감상의 행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인류의 역사를 통해 예술가들이 남겨온 시각물들을 통해 그들의 창조적 여정에 동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미술작품을 통해 그것을 만든 미술가처럼 관찰하고, 질문하고, 연관 짓고, 이러저러한 생각들을 시도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미술작품이 지닌 창조성을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방금 열거한 내용들이 미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창조적 인물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 특징이라면 독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재작년에 국내에도 번역 출간된 '이노베이터 DNA- 성공하는 혁신가들의 5가지 스킬'을 읽어 보신다면, 예술활동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창조성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Artistic Fantastic 미술사>는 미술사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INVITATION TO THE ARTS

가온아트홀	1600-1601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51
동래문화회관	550-6611
레몬트리소극장	626-0116
무대공감 전용극장	623-0678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309-46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성원아트홀	1899-5435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950-6500
소극장 6번출구	625-2117
소민아트센터	991-2200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포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소극장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축제소극장	070-4211-8879
한결아트홀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AN아트홀 서면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KBS부산홀	620-7181
MBC롯데아트홀	760-1177
SM아트홀	1600-1602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신축다례연(辛丑茶禮宴)



● **깊고 은은한 다향(茶香)과 어우러지는 품격높은 무대를 만날 수 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신축다례연(辛丑茶禮宴)이 5월 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신축다례연'은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인 다례(茶禮)와 우리 음악을 융합한 종합무대로, 김정수 예술감독의 지휘, (사)한국차인연합회 다도대학원 부산분원(분원장 최순애), 부산시립무용단, 국가무형문화재 제36호 가곡 이수자 이아미,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김도은의 협연으로 1부에서는 기로다연(耆老茶宴), 2부에서는 접빈다례(接賓茶禮)를 선보인다. 첫 무대인 '기로다연'은 동방예의지국으로 이름 높았던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아름다운 풍속으로, 조선시대 나이가 많아 관직에서 물러난 선비들을 예우하기 위해 열렸던 기로연(耆老宴)을 재현한 무대이다. 당시에는 나라에 공훈을 세운 사람이 장수를 하면 의자와 지팡이, 즉 궤장(几杖)을 하사하고 연회를 베풀었는데 이 잔치를 '사궤장연(賜几杖宴)'이라고 한다. 이 기로연의 바탕이 된 그림이 바로 '기로연겸사궤장지회(耆老宴兼賜几杖之會)'로 1623년(인조1년), 조선 중기의 문신인 이원익에게 궤장을 하사하고 기로연을 베풀었던 일을 기록한 화첩이다.

이 '사궤장연'이 열리면 나라에서는 궁중악사와 무동을 보내어 수제천(壽齊天)을 연주하고 처용무(處容舞)를 추었다고 전해진다. 수제천은 하늘처럼 영원한 생명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음악이고, 처용무는 신라시대부터 '벽사진경(辟事進慶: 사악한 것을 피하고 경사스러운 것으로 들어감)'의 뜻으로 추던 의식무(儀式舞)이다. 이날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수제천 연주와 더불어 이정운 예술감독이 이끄는 부산시립무용단의 처용무로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차(茶)를 통해 다시 살아나기를 기원해본다.

2부에서는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차를 대접하는 의미로 '접빈다례(接賓茶禮)'가 펼쳐진다. 이날 무대에서는 '중광지곡(重光之曲)'이 연주되는 가운데 지난 1979년 창립 이후 다양한 행다례를 보급해오고있는 (사)한국차인연합회 다도대학원 부산분원의 다도시연이 진행된다. 서울대학교 국악과 및 동대학원을 거쳐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정가부문 금상을 수상한 이아미는 기쁜 날을 축원하는 평시조 '오늘이 오늘이소서'를 들려주며, 부산시립무용단 김도은의 독무로 '나비아 청산 가자'가 이어진다.

**일 시** 5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1층 1만원, 2층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부산시립합창단 제181회 정기연주회 뮤지컬 칸타타 **아! 나의 조국**



● **대한민국의 잊혀서는 안 될 과거의 아픈 역사들을 뮤지컬 형식으로 풀어낸 부산시립합창단 '아! 나의 조국'이 5월 13일과 14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그동안 음악극 '운동주'(2017년), 뮤지컬 '레미제라블' 갈라콘서트(2017년-2018년), 가족 뮤지컬 '아주 특별한 선물'(2019년) 등 합창뿐만 아니라 다양한 레퍼토리와 참신한 연주로 관객과 만나온 부산시립합창단은 이번 무대를 통해 창단 후 처음으로 대형 창작 뮤지컬 칸타타를 선보인다. '아! 나의 조국'은 2019년 부산시립합창단 부임 후 섬세하고 화려한 연주로 시민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는 이기선 예술감독이 지휘하고 2015년 부산시립예술단 합동공연 '부산 맥아리랑'의 작곡가 이진실이 극본과 작곡을, 부산시립극단 김지용 예술감독이 연출을 맡아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총신대학교와 미국 뉴저지 주립대학교에서 작곡을 전공한 이진실은 그동안 대구시립합창단, 춘천시립합창단, 전주시립합창단, 강릉시립합창단 등 다수 합창단과 함께 합창음악극 '옛날 옛적에', 합창뮤지컬 '스크루지 할아버지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창작뮤지컬 '환상의 숲' 등 다양한 창작무대를 선보여왔다.

이번에 선보이는 뮤지컬 칸타타 '아! 나의 조국'은 1919년부터 19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 당대를 살아냈던 사람들의 실제 증언과 더불어 독립운동가들의 나라 잃은 슬픔과 해방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은 글과 시로, 일제 치하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한 가족의 비극적 삶을 그리고 있다. 3.1 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 3월 31일, 일제치하 속 나라의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을 벌이던 제암리 마을사람들이 일본군에 의해 무참히 집단살해당하고 이 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동래는 아들 명주, 딸 명희와 함께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아들 명주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 무장 독립운동단체인 의혈단에 가입하고, 명희는 결혼과 함께 딸 순이를 낳아 평범한 삶을 이어간다. 세월이 흘러 순이 나이 18살 되던 1938년, 낯선 일본인에 의해 순이는 강제로 끌려가게 되고 명희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운다. 일제 강점기 삼대에 걸친 아픈 가족사를 통해 잊어서는 안될 아픈 과거사를 그린 '아! 나의 조국'은 특히 칸타타 형식의 오케스트라와 성악적 요소에 뮤지컬적 요소를 더하여 극의 몰입력을 높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소중한 역사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다.

**일 시** 5월 13일-14일 목-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 부산문화회관 607-6000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75회 정기연주회 열정



● 서양음악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작품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으로 마련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75회 정기연주회 ‘열정’이 5월 27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환상교향곡’은 2012년 이후 9년만에 부산에서 연주되는 작품으로, 혁신과 대담한 시도로 유명한 이 작품을 최수열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열정적인 사운드로 만날 수 있다. 고전적인 틀을 깨트린 최초의 교향곡이자 표제음악의 시초라 불리는 ‘환상교향곡’은 사랑의 절망감을 표현한 작품으로, 실제로 무명시절 인기 절정의 여배우를 짝사랑했으나 철저히 무시당했던 실연의 비통함을 음악 속에 강렬히 녹여낸 작품이다. ‘환상교향곡’은 교향곡의 형식 속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과 이를 위해 도입된 고정 악장(이데 픽스)이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이후 세대의 작곡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오케스트레이션에 있어서도 관습적인 2관 편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편성을 변형하거나 확대하면서 혁신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다.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연주에 앞서 1부에서는 핀란드방송교향악단 부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김한의 협연으로 핀란드의 현대작곡가 키모 하콜라가 쓴 ‘클라리넷 협주곡’을 들려준다. 이 곡은 클라리넷이 연주할 수 있는 온갖 기교가 가득한 곡으로, 끼와 열정이 가득한 김한이 연주와 함께 문위크, 탭댄스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2019년 유럽 정상급의 콩쿠르인 독일 ARD 콩쿠르 클라리넷 부문에서 공동 2위와 청중상을 거머쥔 젊은 클라리네티스트 김한은 만 11세에 금호영재콘서트를 통해 데뷔무대를 갖는 등 관악주자로서는 드물게 어려서부터 음악영재로 주목받았다. 2009년 만 13세의 나이로 베이징 국제음악콩쿠르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인 최고유망주상을 수상한 후 2015년 칼 닐센 국제 실내악콩쿠르 2위, 2016년 프랑스 자크 랑슬로 국제 클라리넷 콩쿠르 심사위원 만장일치 1등상과 청중상, 위촉곡 최고 해석상을 동시에 석권하며 차세대 대표 클라리네티스트로서의 이름을 알렸다. 김한은 현재 클래식뿐 아니라 재즈와 현대 음악에 이르기까지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

한편 부산시립교향악단은 5월 25일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의 연습장면을 그대로 공개하는 ‘미완성음악회’를 개최한다.

일 시 5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 ●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멜로디로 듣는 이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리는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가 부산을 찾는다.

소통하는 연주자이자 작곡가로 매년 빠짐없이 한국을 찾고 있는 유키 구라모토는 따뜻하고 서정적인 연주와 진정성 있는 무대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대학시절 응용물리학을 전공한 특이한 이력을 지닌 유키 구라모토는 음악가와 학자로서의 선택의 기로에서 음악가의 길을 택한 후 연주는 물론 클래식 작곡과 편곡, 팝음악 연구에 몰두했다. 지난 1986년 첫 피아노 솔로앨범인 '레이크 미스티 블루(Lake Misty Blue)'의 수록곡 '레이크 루이즈(Lake Louise)'가 크게 히트하면서 성공적으로 데뷔한 그는 이후 영국 런던 필하모니와 협연한 앨범 '리파인먼트(Refinement)'로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았다. 그동안 꾸준한 창작활동으로 그가 녹음했거나 연주한 곡은 360여 곡에 이르며, 특히 'Lake Louise', 'Romance', 'Meditation' 등 수많은 히트곡은 아직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유키 구라모토는 1999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된 첫 내한공연에서 매진을 기록한 후 2019년까지 매년 서울 공연 전석 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

는 피아니스트로 자리매김했다. 매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조수미, 신승훈 등 한국 음악가들과도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친 그는 2009년에는 한국 공연 데뷔 10주년, 2019년에는 공연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전국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했다. 2009년부터는 매년 전석 매진행렬을 이어오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로 관객과 만나오고 있으며, 지난 2019년에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10주년을 기념, 겨울을 테마로 한 스페셜 미니 앨범 '로맨틱 윈터(Romantic Winter)'를 발매하기도 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부산공연을 취소하여 음악팬들의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유키 구라모토는 이번 무대에서 'Hopeful Tomorrow'라는 부제로, 현재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랑과 희망의 멜로디를 전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지, 첼리스트 이윤하, 플루티스트 김일지, 클라리네티스트 강신일이 함께 출연, 오리지널 솔로곡과 더불어 콰르텟 편곡의 연주를 통해 한층 더 깊고 풍부한 무대를 선사한다.

일 시 5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58회 정기연주회

### 창작합창뮤지컬 제비던



- **지난 한 해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으로 활동 공백기를 가졌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2021년 첫 정기연주회 '제비던'으로 관객과 반가운 만남을 갖는다.**

수석지휘자 김수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희망으로 가득찬 봄을 맞아 봄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합창곡과 함께 창작 합창뮤지컬 '제비던'을 선사한다.

1부에서는 Beverly A. Patton의 '소리높여 찬양(Exaudi! Laudate!)'에 이어 한국 합창음악계를 이끌고 있는 작곡가 오병희의 '꽃마음 별마음', 이현철의 '제비꽃', 조혜영 편곡의 '가시리',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수록곡인 '걱정말아요 그대' 등 새봄에 어울리는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특히 님을 떠나보내는 이별의 안타까움을 애뜻하게 노래한 '가시리'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해금주자 윤해승의 연주로 이별의 정한을 절절히 노래한다.

2부에서는 전래동화를 소재로 새롭게 창작된 합창뮤지컬 '제비던'이 무대에 오른다. '심술 맞은 놀부는 원래부터 성질이 고약했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출발한 '제비던'은 지독한 공주병에 걸린 여우같은 공주와 한 여자와의 달콤한 로맨스를 꿈

꾸는 모태솔로 놀부, 오직 한 여자만 바라보는 바보 같은 순정남 번사또 등 기존 캐릭터와는 상반되는 고전소설 주인공들이 등장하여 원작을 뒤엎는 유쾌한 이야기로 관객들에게 웃음과 재미를 전한다. 이번 무대는 Kims Work Table 대표로 있는 연출가 김희연이 각본과 연출을, 4인조 라이브밴드 '초록구두'가 연주를 맡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의 무대를 선사한다.

연출가 김희연은 그동안 인천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안산시립합창단, 성남시립합창단, KBS 청춘합창단 등 다수 합창단의 무대연출을 비롯해 여수엑스포, 순천정원박람회, 광복 70주년 기념 평화콘서트, 한-아세안회의 기념음악회, 임진각 타종행사 등 다수 행사의 기획 및 연출을 맡은 바 있다. 현재는 극동방송 율학원코랄, CTS 소년소녀합창단 프로젝트 콰이어 전임 안무 연출가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생생한 라이브 연주를 들려줄 '초록구두'는 이번 '제비던'의 작곡을 맡은 건반주자 손민혜를 비롯해 이진선(건반), 김서현(베이스), 최소율(드럼) 등 4명의 연주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인천시립합창단, 월드비전, 과천시립합창단, 서울레이디싱어즈 등 다수 합창단의 뮤지컬 세션으로 활동해왔다.

**일 시** 5월 29일 토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2천원(거리두기 좌석제)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제17회 부산국제무용제 춤의 꿈결, 꿈의 물결

5. 31<sup>㉔</sup> ~ 6. 13<sup>㉔</sup>

해운대해변 특설무대,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사)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868-7881, www.bidf.kr



해양수도 부산의 6월을 아름답게 수놓을 춤의 향연 '제17회 부산국제무용제(The 17th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BIDF)'가 6월 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그 화려한 막이 오른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무용제로 개최됐던 부산국제무용제는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장기화되자 온·오프라인이 함께하는 무용제로 시민들과 만난다.

지난 2005년 '부산국제해변무용제'로 첫 발을 내딛은 후 2008년 부산국제무용제로 명칭을 바꾸고 그동안 세계 다양한 장르의 무용작품을 선보여온 부산국제무용제는 특히 아름다운 부산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전 세계 춤의 향연이 펼쳐지면서 시민과 관객들에게 춤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선사해왔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경연부문인 'AK Arts Korea 21 국제안무가 육성대회'를 통해 세계무대의 주역이 될 안무가를 발굴해오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BIDF 국제무용콩쿠르'를 개최, 젊고 유망한 무용수들이 국제적인 경력을 쌓아 국제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춤의 꿈결, 꿈의 물결'이라는 테마로 열리는 이번 부산국제무용제는 국내 무용단체를 비롯해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카자흐스탄, 루마니아/헝가리, 이스라엘, 대만, 독일, 인도네시아, 중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 13개국 52단체가 참여한다. 우선 6월 4일 개막식이 열리는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는 개막축하공연 갈라콘서트를 통해 국내외 아티스트 7개 작품이 관객과 직접 만난다. 아르헨티나 Ideal Art(Sebastian Miguel Acosta, Flvia Laura D'Anna)의 'Tango Songs'을 비롯해 A Dance Project(Maro Russo Volpe)의 'BHOPAL 1984', 국립발레단(송정빈)의 '해적 침실 파드되', 김남진 피지컬씨어터(김남진)의 '새', 박상용무용단(박상용)의 '진도북놀이', 비클라(정영재)의 '1.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 2. 평화로운 백조를 위하여', 신은주무용단(신은주)의 '파란II' 등의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 등 다채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국내외 공식초청공연 단체가 출연하는 BDF 공식초청공연은 6월 4일부터 나흘간 부산국제무용제 홈페이지 [www.bidf.kr](http://www.bidf.kr)와 유튜브, 네이버TV를 통해 온라인 상영된다. 국내 초청작으로는 Company J(정재혁)의 '놀음', LDP(김동규)의 '몸부림', 고블린파티(지경민)의 '동지', 와이즈발레단(홍성욱)의 '비틀즈 슈트', 윌유엔터테인먼트(임현태)의 '춤추는 서예-숲', 이태상프로젝트(이태상)의 '잡종블루스' 등 6개 작품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이 가진 새로운 미의식을 소개한다. 국외 공식초청작으로는 아르헨티나의 '탱고', 에콰도르 Compania Nahinal de Danga Ec의 'La Consagración de la Primavera(봄의 제전)', 카자흐스탄 Altai의 'Torzhorga, Abai's songs', 루마니아/헝가리 M Studio Elevator의 'boys will be boys', 이스라엘 Avshalom Pollak Dance Theatre의 'Krump, October', 대만 YiTzy Folk Dance Theatre의 'The Festival, The New Year Celebration', 독일 Emanuele soavi incompany 'Relics, Invasion-The Offenbach Project', 인도네시아 Chakil Squad Art Community의 'Greged Nyawiji, Rewanda seta', 중국 Guangzhou Ballet Culture and Art의 'On the Other Side of Water' 등 9개 단체가, 국제 협업단체로는 오스트리아 Lee Jung In Creation and Black Box Dance Company 'Addiction', 캐나다 Suddenly Dance Company 'Lucky Maybe' 등 2개 작품이 참여한다.

무용제 기간에 앞서 6월 2일 펼쳐지는 또 하나의 공식 행사인 'AK21 국제안무가육성경연'은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동시에 유튜브, 네이버TV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다. 'AK21 국제안무가 육성 경연'은 부산국제무용제의 장학지원 사업으로, 무용계의 미래를 선도할 젊은 안무가들이 서로의 역량을 겨루는 안무 경연 무대이다. 이날 무대에서는 2020년 AK21 최우수단체로 선정된 경희댄스시어터(박재현)을 비롯하여 2차 심사를 마친 네 팀이 결선무대에 오른다. 6월 3일부터 사흘간 영화의전당 중극장에서는 (재)영화의전당과의 공동기획으로 'BIDF

Dance in Cinema'를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산국제무용제가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영화 '댄싱 베토벤', '그녀에게', '스윙키즈' 등 세 편의 무용영화(dance film)를 선정, 무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벗어나 영상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무용감상의 길을 일반인들에게 제시한다.

이밖에 '세상의 모든 춤'을 주제로 한 영상물을 상영하는 'BIDF 시민모바일댄스'는 6월 3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단체들의 경연대회 '시민단체 참여무용'과 부산지역 전문 무용단의 'BIDF 열린춤무대'는 6월 5일과 6일, 각각 해운대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이번 무용제를 마무리하는 폐막식 및 폐막축하 무용영화 상영은 6월 7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AK21 국제안무가육성경연', 'BIDF 시민모바일댄스', '시민단체참여무용'이 시상식과 함께 열리며, 무용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제3회 BIDF 코리아댄스 그랑프리(국제무용콩쿠르)'는 6월 12일부터 이틀간 부산문화회관에서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 제17회 부산국제무용제 주요 일정

- BIDF 찾아가는 홍보 공연  
5월 31일(월)-6월 1일(화) 부산시민공원 방문자센터야외공연
- BIDF 토크콘서트  
6월 1일(화) 오후 6: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로비
- AK(Arts Korea)21 국제안무가육성경연 [공식행사 I]  
6월 2일(수) 오후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 BIDF Dance in Cinema  
6월 3일(목)-5일(토) 영화의전당 중극장
- BIDF 시민모바일댄스  
6월 3일(목)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BIDF 개막식 및 개막축하공연 갈라콘서트 [공식행사 II]  
6월 4일(금) 오후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 BIDF 공식초청공연 [공식행사 III] ※온라인공연  
6월 4일(금)-7일(월) 오후 7:30 유튜브, 네이버TV, BDF 홈페이지
- BIDF 시민단체 참여무용  
6월 5일(토) 낮 12:00 해운대해변 특설무대
- BIDF 열린춤 무대  
6월 6일(일) 오전 11:00, 오후 1:00 해운대해변 특설무대
- BIDF 폐막식 및 폐막축하 무용영화 상영 [공식행사 IV]  
6월 7일(월) 오후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 제3회 BIDF 코리아댄스 그랑프리  
6월 12일(토)-13일(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Drama’에서 ‘Dance’로, 탈춤의 새길 찾기

천하제일탈꾼

‘가장무도화-일상을 위한 일탈’

◆ 이상현 춤 비평가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고 경사를 맞는다는 ‘벽사진경’은 시간 흐름에 따라 이루어진다. 경사스러운 일을 맞이하려면 먼저 나쁜 기운을 몰아내야 한다. 전통 연희는 ‘벽사’하고 ‘진경’에 이르는 동안 연희자와 관객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함께 신명을 느끼게 된다. 공동체의 신명을 위해서는 연출된 과정이 필요한데, 탈춤의 각 과장이 그것이다. 서구 연극이 인과론에 기초한 ‘행동의 통일’이 구성의 중요한 원리지만 탈춤은 연기론에 근거한 놀이성이 강하다. 탈춤은 ‘피라미드형 기승전결 또는 발단-전개-절정-대단원의 구조를 갖지 않는 연산(連山)구조다.’(채희완 ‘탈춤에서 소외된 계층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즉, 탈춤의 각 과장은 독립적이며 완결성을 갖는다는 뜻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탈춤은 전체 판을 연희하지 않고 하나의 과장이나 특정 인물만으로 연희할 수 있다. 지난 4월 3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있었던 천하제일탈꾼의 <가장무도화-일상을 위한 일탈>은 탈춤이라서 가능했던 공연이었다. 전국을 망라한 탈춤이 각각의 맥락에서 벗어나 ‘코로나 19로 일상을 잃어버린 지금’ 탈춤의 신명으로 ‘악귀를 소멸’하겠다는 소망으로 한 무대에 섰다.

공연은 시작부터 마당 판 분위기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객석 조명을 밝힌 채 11명의 탈꾼이 경쾌하게 등장했다. 반주를 맡은 ‘큰 나무’ 악사들은 길놀이를 방불케 하는 신명난 장단으로 탈꾼들을 맞았다. 객석도 들썩이며 이내 추임새가 터져 나왔다. 연희자, 관객 모두 신명난 판을 갈망하는 마음이 절실했다. 판은 탈고사로 시작했다. 고사의 엄숙함이 끝나고 진행을 맡은 이주원 탈꾼이 기획 의도와 출연자 탈꾼들을 소개했다. 순서를 추첨으로 정했는데, 4종 목석 1부, 2부로 나누었다.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동안 다른 탈꾼들은 무대에 둘러앉아 차례를 기다리며 관객이 되었다. 이로써 객석과 무대 위에서 차례







를 기다리는 출연자이자 관객은 하나의 마당 판을 형성했다. 프로시니엄 무대를 마당으로 전환한 발상이 빛을 발한 장면이다. 마당 판은 관객이 연희자를 보는 일방적 시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객끼리 서로 살피는 시선도 존재한다. 관객은 연희자가 노는 모습을 보면서 건너편 관객의 반응을 동시에 살필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시각이 액자 무대가 아닌 판, 또는 장(場)을 만든다. 이것만이 아니다. 여기에 또 다른 시각이 더 한다. 2층 객석에 자리한 관객은 연희자, 연희를 보는 관객, 관객끼리 서로 관찰하는 시선 모두를 볼 수 있는 전지적 위치에 있게 된다. 전통연희 마당에서 사람이 많아 근처 나무 위로 올라가 판 전체를 보는 시각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연희자를 중심으로 둘러앉은 전통연희 마당에서 존재했던 다층적 시선이 그날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무대에서 구현된 것이다.

출연자가 차례로 등·퇴장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마당을 구현한 연출은 극장 공간 전체를 일렁이게 했고, 그 요동치는 에너지 때문에 2시간이 길지 않게 느껴졌다. 이날 무대에 오른 탈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새삼 언급할 필요는 없다. 춤꾼의 기량이 성숙해가는 나이대인 30~40대라는 점도 공연 열기를 더하는 데 큰 몫을 했다. 춤꾼들은 각자의 판에서 연희할 때보다 더한 기량을 보였다. 왜냐하면 기존 탈춤 판에서는 말은 만큼만 해야 하지만, 맥락을 벗어난 이 날 무대에서는 이야기 흐름과 관계없이 춤추고 싶은 대로 마음껏 기량을 뽐낼 수 있었다. 탈춤의 영어 표기는 'Mask Drama'이다. 이야기를 통해 주제를 전달하는 연극의 일종으로 본다. 이야기를 끌고 가는 방식에서 춤과 대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춤만 돋보이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관객도 춤보다 대사나 몸짓에서 드러나는 이야기에 주목한다. 그런데 이날은 'Drama'를 벗고 춤만 남은 'Mask Dance'가 됐다.

이 공연에서 각 춤꾼을 언급하지 않으려 했다. 기량이 고르게 좋았고, 서로 다른 탈춤의 특성이 있기에 비교 언급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여러 명이 기량을 겨루듯 하는 공연에서 돋보이는 춤꾼을 만나는 순간의 희열은 감출 수 없었다. 이번 공연에서 눈길을 사로잡은 춤꾼은 박인선(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이 중 곱추춤)이었다. 탈을 쓰지 않고 시작한 춤에서 그의 표정은 압권이었다. 탈보다 더 탈 같은 표정들은 곱추로 살아 온 삶의 깊은 회한과 그런데도 결코 버릴 수 없는 자존감을 담고 있었다. 낮게 깔린 움직임은 기이한 유연함을 뽐냈고, 안으로 말려드는 역동적, 도약 없이 대지를 쓸어 담는 듯한 디딤새가 어수어수 조화로운 감칠 맛 나는 춤이었다. 춤을 보는 내내 추임새를 잊을 만큼 빠져들었다. 장애를 극복해 몸을 해방한다는 이른바 '병신춤류의' 탐탁지 않은 변명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다. 북청사자놀이 중 곱추춤이 아니라 그저 '박인선의 춤'이었다.

<가장무도화-일상을 위한 일탈>이 보여준 춤 맛이 도드라지는 탈춤의 변화는 반길 만하다. 요즘 세대는 드라마나 영화도 아예 '짤방'이라는 짧게 토막낸 영상으로 본다. 이런 세대가 몇 시간 걸리는 탈춤 전 과장을 끈기 있게 볼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고어체나 한자어를 쓰는 탈춤의 대사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내용에서도 파계승, 처첩 갈등, 무능한 양반을 비꼬는 계급 비유를 제대로 새기지 못한다. 이렇게 가다가는 탈춤 전 과장을 연희하는 일은 보존회 정기행사로 일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지도 모른다. 연희자들이 기량을 펼칠 기회도 당연히 줄어들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탈춤꾼들은 탈춤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춤꾼으로 독립적 가치를 찾아야 한다. <가장무도화-일상을 위한 일탈>은 전통 연희자들의 홀로서기의 한 방식이다. 그래서 공연의 가치와 의미가 남다르다.

## 창조를 위한 새로운 접속

부산시립극단  
제69회 정기공연  
‘A point of CONTACT : 접점’

◆ 정봉석 연극평론가,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지난 4월 9일부터 11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는 부산시립극단의 제69회 정기공연인 <A point of CONTACT : 접점>이 공연되었다. 이번 공연의 의의는 김지용 예술감독의 창작 초연작이라는 점에 있다. 재작년에 부임해올 때부터 그가 진행할 공연에 대한 기대가 컸다. 부산에서는 드물게 창작과 연출의 역량을 겸비한 까닭이었다. 그런데 몇 차례의 정기공연이 이어지는 동안 그의 창의력은 소포클레스, 셰익스피어, 체홉 등으로 이어지는 고전 번역극들의 재구성에 집중되고 있었다. 그러한 작업들도 나름의 의미가 있겠지만, 고전극의 유명세에만 의존한다는 의구심이 없지 않았다. 모름지기 프로 극단의 존재 의의는 자체적으로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에 있다. 그럼에도 시립극단의 올해 공연 계획도 체홉과 안데르센 등의 번역극으로만 채워져 있어 아쉽던 차였는데, 뜻밖에도 예술감독이 창작한 오리지널 공연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도 2010년 이후에 극작이 멈춰져있던 극작이 재개된 것이라 하니 축하할 일이다. 그럴 만큼 이번 창작공연의 성과가 우수하였다.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21세기 말로 추정되는 미래이다. 그렇다고 하여 무대는 미래의 테크놀로지를 과장하여 연출하지 않는다. 미래의 사회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자력, 화력 발전소들이 퇴출되어 의무 정전 제도가 시행되고, 전력 보충을 위해 우주에서의 태양광 에너지 충전사업이 진행되고, 인큐베이팅 센터를 통한 체외수정이 선호되고, 유전자 변이 식품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는 정도이다. 작품의 초점은 SF적인 상상력보다 인간적인 삶의 조건에 맞춰져 있다. 공연의 제목처럼 사람들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몇 개의 접점(point of contact)이 있을 뿐이다.

접점, 즉 접속이 이루어지는 지점은 크로노토프로 이루어진다. 그리스어로 시간을 뜻하는 크로노스(chronos)와 장소를 뜻하는 토포스(topos)가 결합된 크로노





토프는 러시아의 미학자 미하일 바흐친이 고안해낸 비평용 어로서 작품 속에 예술적으로 표현된 시간과 공간 사이의 내적 연관을 뜻한다. 그러므로 작품의 주제는 인물이 특정한 크로노토프와의 접속을 완료할 때 생성된다. 그런 의미에서 연극이 이루어지기 전의 텅 빈 무대는 언제든지 새로운 시공(chronotope)과 접속할 수 있는 가능태로서 존재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들뢰즈의 ‘-되기(devenir, becoming)’ 개념이 접속을 전제로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김지용의 극작의지는 약 100년 후로 설정된 시간에 방송국 사무실, 태양광위성 패널 조립현장, 우주기지, 천문대, 무당집, 병원, 방송국 옥상 등의 공간을 접속하여 다층적인 크로노토프를 생성하는 것이다. 그 접점들을 재현하기 위해 무대는 미니멀리즘을 표방하고 있다. 간결하고도 선명한 직선과 평면으로 공간을 배치하는 한편, 객석의 둘레를 통로로 확장하고, 배경막과 천정으로까지 프로젝트를 영사함으로써 도시에서 천문대와 우주로 시공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배려한 황지선의 무대 디자인은 인상적이었다.

극의 내러티브는 방송국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전개되지만 하나의 중심 같으므로 집약되지는 않는다. 도입부는 태양광 에너지 위성 작업의 완공에 관한 특집방송을 준비하는 방송국의 내부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위성 궤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방송이 취소되고, 시공간은 사고의 현장으로 옮겨간다. 태양광 패널 조립 도중 위성의 잔해와 충돌하여 조난당한 엔지니어 ‘한기영’은 구조를 기다리던 도중, 일 년 전에 운석 파편과의 충돌사고로 실종되었던 ‘구경모’ 팀장의 환영과 만난다. 이것이 첫 번째의 접점이다. 한편, 유명 드라마 작가인 ‘공연주’는 뇌종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고 전 남편을 만나러 천문대를 찾아왔다가 의식을 잃고 뇌사상태에 빠진다. 그러나 이미 후배 연구원을 사랑하게 된 교수는 천문대로 돌아오는데, 그곳에는 잉태된 새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작가의 최후는 어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헤어져 살았던 언니가 지키게 된다. 이것이 두 번째의 접점이다. 세 번째 접점에서는 한기영이 우주 조난 시에 습득하였던 구팀장의 최후의 목소리가 담긴 메모리칩이 미망인에게 전해지고, 구천을 떠돌던 혼령은 무당을 만나 저승으로 인도된다. 네 번째의 접점은 체외수정에 대한 이견으로 위기에 빠졌던 촬영감독 부부가 사랑으로 다시 결합하는 것으

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접점들이 중첩되는 동안 관객들은 결국 미래에도 변함없이 중요한 가치는 가족과 사랑이라는 주제를 공감하게 된다.

들뢰즈는 철학이란 ‘개념의 창조’라고 하였다. 개념(concept)이라는 말의 어원은 ‘잉태하는(conceptus)’ 것이다. 이는 임신(conceptio)과 연관된다. 그렇듯이 예술 또한 개념을 잉태하는 것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잉태된 개념을 예술적으로 출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예술적으로 잉태된 개념을 컨시트(conceit)라고 한다. 보통 기상(奇想)이라고 번역되지만, 컨시트는 예술적으로 발상된 개념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창조/잉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속(contact)이 선행되어야 한다. 접속 없는 생성(becoming)은 없다. 자크 라캉은 이와 같이 접속하여 생성하는 존재를 ‘여성’이라고 하였고, 들뢰즈는 그러한 실천을 ‘여성-되기’라고 하였다. 이 두 철학자와 접속을 이룬 사사키 아타루는 ‘텍스트와 접속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쓰는 행위를 혁명’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새롭게 접속하여 작품을 생성해내는 예술가들은 모두 여성이며, 혁명의 전사들이다.

김지용 예술감독은 극작가로서 미래의 크로노토프와 접속하여 <A point of CONTACT : 접점>을 잉태하였다. 근 10년 만에 여성이 되어 이루어낸 출산이다. 그리고 부산시립극단 단원들과 함께 텅 빈 무대와 접속하여 제69회 정기공연 <A point of CONTACT : 접점>을 생성해내었다. 시립극단 자체의 순수 레퍼토리가 탄생한 것이다. 여성-되기를 이루어낸 이 순간 부산시립극단 단원들은 창조하는 여성이며, 혁명의 전사들이다. 그들의 노고에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부단히 접점들을 이루어내길 기원한다.



## 검은 인생의 한 페이지

### 제39회 부산연극제 경연작 ‘검은 입김의 신’

◆ 김남석 연극평론가, 부경대학교 교수

원래 ‘막장’은 ‘갱도의 막다른 곳’을 가리키는 말로, ‘채벽’이라는 말과 의미상 유사하고, 그 의미가 확장되어 ‘막장에서 광물을 캐는 일’까지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하지만 일상에서 막장은 ‘갱도의 끝’을 가리키기보다는 ‘인생의 끝(장)’을 가리키는 용어로 더 흔하게 사용된다. 가령 ‘막장드라마’는 인생의 끝장에서 만나는 상황을 가리키는 속어로 쓰이며, 끝장의 의미인 ‘실패, 패망, 파탄’ 등의 속된 말로 사용되기 일췌이다.

이렇듯 막장이라는 용어에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사람들, 혹은 그 처지를 비유적으로 사용할 만큼 잔혹한 현실이 숨어 있는 셈이다. 누리예의 <검은 입김의 신>은 막장의 의미를 다양하게 반추하도록 만드는 힘을 비축한 공연이었다. 당초 현실 맥락이 없어 보였던 탄광촌 사람들의 삶과 비극이 ‘막장’이라는 현실 용어 덕분에 매우 유기적인 현실 맥락을 지닌 작품으로 재조명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의 지금-현재 일상과 ‘막장’의 의미는 기묘한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더구나 <검은 입김의 신>은 이러한 막장을 다루는 방식에서 중요한 미덕까지 내포하고 있었다. 그것은 ‘인생 막장에 몰린 사람’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의 처지나 관련 상황에 대해 함부로 비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손쉽게 낙관하지도 않은 점이었다. 탄광촌에 새로 와 광부가 된 남자 상진은 실제로는 현실의 빈한한 처지에 밀려 탄광부의 삶을 선택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는 선택을 감행해야 했던 인물이다. 이러한 그의 선택과 용기는 크게 칭찬받을 만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극 중에서 그는 초심을 잃고 변질 왜곡되는 삶을 살아가는 유형의 인물로 바뀐다. 하지만 이러한 상진의 모습은 함부로 폄하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적극 옹호되지도 않는다. 결국 그 삶의 결을 따르고 관찰하는 미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편견 없이 상진의 삶을 볼 수 있었다.





이 점이 관객들에게는 <검은 입김의 산>을 긴장하면서 볼 수 있도록 만든다. 내려앉은 생에 대한 막연한 동정을 피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애초 불가능했던 막장 탈출이 결국 좌절되는 상황에 마냥 긍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금만 더 나아가면, 이러한 생각과 행동이 궁극적으로는 지금-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때나마 잠시지만 전율할 수도 있다.

극중 인물의 말대로, 우리는 검은 재가 쌓인 마을에 살지도 않고, 검은 입김이 나오는 신체적 변화를 인지하고 있지도 않다. 물론 지하 수백 미터를 이동하고도 더 막다른 끝을 찾아 탄광 속을 움직여야 하는 행보를 감수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검은 앙금이 쌓인 마음으로 인해 어둡고 칙칙한 현실 풍경에 휩싸이기도 하고, 신체적/병리적으로 이상 없다고 해도 어둡처럼 정신을 쪼먹는 근심과 우려로 인해 어쩌면 앞길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막막함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다.

비록 우리 앞에 탄광과 갱도가 놓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삶 자체가 탄광과 갱도처럼 막장을 향하는 공간이라는 의식을 갖도록 유도할 수는 있다. 공연 내내, 우리가 광부는 아니지만 저 상황은 우리의 상황과 같다거나, 지금 내가 무너진 탄광에 갇힌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일상은 그에 버금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과 자문을 자아내는 것도 동일한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탄광촌과 탄광부의 이야기가 지금-여기서 행해져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낸다. 이 작품에 충실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탄광으로 하루하루 걸어 들어가고, 그 어둠 속에서 불안과 위기에 떨고 있는 현실의 광부와 다를 바 없다고 해야 한다. 진짜 광부는 가난한 삶을 영위할 돈을 벌기 위해서 석탄을 캐고, 유사 광부-우리는 내 안의 어둠을 물리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진실을 캐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런데 어쩌면 같은 일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지우기 어렵다.

이러한 생각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은 무대였다. 처음부터 연출가 강성우는 무대 전체를 갱도 혹은 탄광촌 내부로 꾸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그의 의도는 부산 시민회관 소극장 무대를 천정부터 바닥까지 탄광 속 내부 풍경으로 꾸민 무대로 실현되었다. 이러한 갱도 내부의 풍경은 현실적 관점에서 광산촌의 모사이기보다는, 심리적이고 서사적인 상황에서 인



물들의 대결과 상황을 드러내는 배경으로 더욱 강하게 작동했다. 가령 그 공간을 지나는 빛은 때로는 구원이고 때로는 절망이 되었다. 그 공간에 덧입혀지는 조명은 때로는 대책 없는 환상(블루 계열)이거나 창백하고 냉정한 현실(형광등 조명을 담은 빛깔)을 표현했고, 드문드문 꺼지고 켜지는 순간에는 위기의 직전과 절정의 순간을 담아내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빛의 작용은 무대 위에서 현실의 빛깔을 입혀 상응 관계를 담아내기보다는, 현실 앞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내면 풍경과 인간관계를 보여 주는 데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조명과 무대는 탄광촌 사람들의 내면 풍경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는 내면 풍경은 간사할 정도로 뻑뻑하다. 결과적으로는 절망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직전까지는 희망을 품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을 속이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을 속여야 했다. 남편들은 다른 선택이 없으면서도 탄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고, 아내들은 그러한 남편을 이해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죽음의 막장으로 밀어넣어야 했다. 현실이 죄를 짓도록 강요했고, 죄가 현실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무대가 내면이고 인물들의 행동이 그 내면에서 움직이는 거역할 수 없는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할 때, 시각적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무대는 우리 마음의 변화난축을 보여 준다. 우리는 어느새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었고, 그래서 그 변화하는 간사함을 볼 때 괴롭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음의 풍경인 무대를 보면서, 우리 안에 은폐시켰던 현실의 참혹한 면을 더는 외면할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탄광촌에서 찾아내야 했다. 그것도 깊이 숨겨둔 내면의 모습을 말이다.

부산문화회관

**2021 BSCC 시네 오페라 초이스  
베르디 완전정복  
메트로폴리탄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일 시 | 5월 1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전체 관람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세계 각국의 유명 오페라 극장과 페스티벌의 공연 실황을 생생한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2021 BSCC 시네 오페라 초이스'.

그 첫 상영회에서는 꿈의 무대로 통하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2019

년 무대 '라 트라비아타'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영상은 비할 데 없는 미성과 파워를 지닌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와 세계 3대 소프라노로 각광받는 최고의 소프라노 디아나 담라우가 출연해 야닉 네제 세간의 박진감 넘치는 지휘와 함께 음악의 극적인 아름다움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손혜림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일 시 | 5월 1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락 010-5468-4658



풍부한 감성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주목받는 바이올리니스트 손혜림 귀국 독주회.

부산예고 재학 중 도독, 에센 국립음대 장학생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손혜림은 독일 유학 중 다양한 오케스트라 활

동으로 다수 국제음악제에 초청받았으며 독일 NRW지역을 중심으로 수차례 솔로와 실내악 무대로 꾸준한 활동을 펼쳤다.

실내악과 바로크 음악에도 큰 관심을 가지면서 귀국 후 다양한 연주활동을 이어나 손혜림은 현재 에델현악사중주, 부산로얄필하모니 단원으로 활동하며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 모차르트/소나타 마단조 K.304
- 베토벤/소나타 제3번 내림마장조 작품 12
- 그리그/소나타 제3번 다단조 작품 45
- 피아노/조현정

**제겐 피아노 듀오 제2회 정기연주회  
듀오 제겐의 두 번째 이야기  
Ars Gallica(프랑스 예술)**

일 시 | 5월 2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동문인 피아니스트 공은지, 정보근으로 결성된 제겐 피아노 듀오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공은지는 현재 동아대학교, 울산대학교, 선화예술중, 계원예술고, 안양예술고 강사로, 정보근은 현

재 부산예술중, 신라대 음악영재교육원 외래교수, 보검무지크 대표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서울 일신홀에서의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무대를 통해 레퍼토리를 꾸준히 넓혀온 제겐 피아노 듀오는 이번 무대에서 'Ars Gallica(프랑스 예술)'라는 타이틀로 폴랑크, 드뷔시, 미요, 비제, 생상스 등 프랑스 작곡가의 작품을 들려준다.

**어린이뮤지컬 더퀸 선덕여왕의 귀환**

일 시 | 5월 5일 수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4만원(24개월 이상 관람 가능)  
문 의 | (주)플레이더부산 1600-0316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을 소재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구성된 역사이야기를 모션그래픽을 이용한 화려한 볼거리로 즐길 수 있는 어린이뮤지컬 '더퀸 선덕여왕의 귀환'.

모션그래픽은 비디오 영상 혹은 애니메이션 기술을 이용하여 영상 속 다양한 움직임이나 회전의 환영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모션그래픽을 이용한 실감나는 액션으로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친구들과 경주로 소풍을 간 주인공 해주는 길을 잃게 되고 갑작스러운 천둥번개에 정신을 잃게 된다. 다른 세계에서 깨어난 해주는 자신을 덕만이라 부르는 화랑을 따라 왕궁에 들어가게 되고, 자신감 없고 소극적인 해주에게 어마어마한 모험이 기다린다.

**2021 부산음악축제**

일 시 | 5월 6일-7일 목-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사)부산음악협회 634-1295



(사)부산음악협회가 매년 마련하는 부산음악축제 2021년 무대.

6일 '신인음악회'에서는 차세대 음악계를 이끌고 갈 실력있는 신인 연주자들의 무대로 꾸며지며, 7일 '양상블의 밤'에서는 부산지역 8개 양상블팀이

출연, 다양한 장르의 양상블 연주를 들려준다.

**6일 2021 신인음악회**

기악 및 성악, 작곡 등 다양한 장르의 신인연주자들이 들려주는 다채로운 무대.

**프로그램**

- 쇼팽/녹턴 나장조 작품 62 제1번
- 마스네/오페라 '베르테르' 중 '왜 나를 깨우는가'
- 리스트/타란텔라
- 이원주/연
- 비도르/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작품 34
- 포레/요람

김현우/Sunlight and Moonlight 'in the Forest' 등

- 피아노/서다영, 김민주, 김은파, 이지은
- 플루트/장재우 • 색소폰/이현진
- 테너/문민성 • 소프라노/박은은
- 메조소프라노/김성은
- 작곡/김현우

**7일 2021 양상블의 밤**

피아노양상블에서부터 현악사중주, 관악양상블, 피아노6중주 등 다양한 장르의 양상블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무대.

**프로그램**

- 생상/죽음의 무도 작품 40
- 고베르/플루트, 오보에, 피아노를 위한 타란텔라 로드리게스/라 콤파르시다
- 마이크 모어/소나타 라티노
- 스메타나/현악4중주 제1번 마단조
- 라벨/볼레로
- 요한 슈트라우스/트리치 트라차 폴카 등
- 연주/피아노블(Pianoble), JM양상블, 드 콤파, 포르투나 양상블, 더 아티스트, 부산현악사중주, TDC 양상블, 후 브라스 콰이어



## 루체살레 창단연주 한국사랑 가곡사랑

일 시 | 5월 6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루체살레 010-5015-9215



소프라노 김유섬 예술감독을 주축으로 테너 김준연, 장진규, 바리톤 나현규, 소프라노 김유진, 김시하, 박영순, 오예은, 조윤정, 정수정, 엄남이, 황성아로 구성된 루체살레의 창단무대.

‘루체살레’는 ‘빛과 소금’이라는 뜻으로, 부산·경남지역 음악계의 빛과 소금을 담당하는 단체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각오로 붙인 이름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로 코로나19로 지친 관객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 프로그램

구아스타비노/장미와 버드나무  
 마스네/오페라 ‘르 시드’ 중 ‘올라라 나의 눈이여’  
 임금수/강건너 봄이 오듯  
 쇼팽/이별의 노래 등 수곡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신축다례연(辛丑茶禮宴)

일 시 | 5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1층 1만원, 2층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깊고 은은한 다향(茶香)과 어우러지는 품격높은 무대를 만날 수 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신축다례연(辛丑茶禮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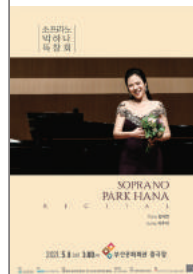
김정수 예술감독의 지휘, (사)한국차인연합회 다도대학원 부산분원(분원장 최순애), 부산시립무용단, 국가무형문화재 제36호 가곡 이수자 이아미,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김도은의 협연으로 1부에서는 미풍양속을 기리는 기로다연(耆老茶宴), 2부에서는 접빈다례(接賓茶禮)를 선보인다.

### 프로그램

1부 기로다연(耆老茶宴)/수제전, 차용무  
 2부 접빈다례(接賓茶禮)/중광지곡, 평시조 ‘오늘이 오늘 이소서’, 독무 ‘나비야 청산 가자’

## 소프라노 박하나 독창회

일 시 | 5월 8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유니코 02-532-4876



독보적인 예술성으로 최상의 음악을 선보이는 소프라노 박하나 독창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도미, 신시네티 음악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졸업한 박한나는 그동안 다양한 오페라 무

대에서 매혹적인 음색으로 관객을 사로잡으며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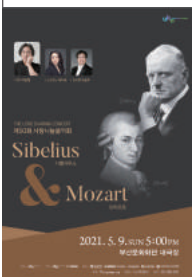
특히 Wolf Trap Opera에서 주역으로 출연한 ‘라 보엠’을 통해 워싱턴 포스트로부터 ‘맑고 기쁨을 주는 목소리로 캐릭터 소화능력이 뛰어나며 오페라의 정서적 중심에서 빛을 발하였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박한나는 제26회 음악저널 신인음악상, 2018년 대한민국오페라대상 신인상을 수상하며 전문연주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피아노/김지연 • 기타/이주석

## UKO오케스트라 제50회 사랑나눔 음악회 시벨리우스&모차르트

일 시 | 5월 9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UKO오케스트라 988-3087



소아암,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와 그 가족들을 돕기 위해 지난 2006년 설립된 민간 자선오케스트라인 UKO오케스트라가 펼쳐는 사랑나눔음악회.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해 울산, 창원, 진주, 마산, 포항 등 지역 시립교향악단 단원들과 부산, 경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연주자 100여명으로 구성된 UKO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연주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여 난치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새생명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민형이 지휘하고 소프라노 박나래, 바리톤 이승우의 협연으로 시벨리우스, 모차르트의 곡을 들려준다.

## 부산시립합창단 제181회 정기연주회 뮤지컬 칸타타 ‘아! 나의 조국’

일 시 | 5월 13일-14일 목-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대한민국의 잊혀서는 안 될 과거의 아픈 역사들을 뮤지컬 형식으로 풀어낸 부산시립합창단 ‘아! 나의 조국’.

부산시립합창단 창단 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창작 뮤지컬 칸타타 ‘아! 나의 조국’은 섬세하고 화려한 연주로 시민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는 이기선 예술감독이 지휘하고 2015년 부산시립예술단 합동공연 ‘부산 맥아리랑’의 작곡가 이진실이 극본과 작곡을, 부산시립극단 김지용 예술감독이 연출을 맡아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칸타타 형식의 오케스트라와 성악적 요소에 뮤지컬적 요소를 더하여 극의 몰입력을 높였다.

## 스승의 날 기념 코리아 챔버 브라스 비틀즈와 퀸의 만남

일 시 | 5월 15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부산문화 1600-1803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 5중주를 주축으로 10명의 금관악기 연주자로 구성된 코리아 챔버 브라스가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락의 전설 비틀즈와 퀸의 명곡으로 관객들에게 가깝게 다가간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무대에서 오페라 주역 및 솔리스트로 활동하다 돌아온 소프라노 황신영이 특별출연, 보다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 트럼펫/드미트리 로카렌코프, 안세윤, 박승훈, 문희
- 트럼본/정성화, 손무정, 방재표
- 호른/김형준, 홍혜진
- 튜바/송인봉 • 팀파니/장경식
- 특별출연/소프라노 황신영

## 제10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일 시 | 5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www.johnlee.or.kr 예약 후 추첨, 개별통지)  
 문 의 |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637-0125



‘수단의 슈바이처’이라 불리는 이태석 신부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나눔문화의 활성화와 클래식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매년 마련하는 제10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장래가 보장된 의사의 길을 버리고 사제가 되기로 결심한 이태석 신부는 2001년 사제 서품을 받아 아프리카 수단의 톤즈로 파견을 자청하여 그곳에서 교육과 의료봉사에 헌신했다. 올해로 벌써 10주년을 맞는 이번 무대에서는 오충근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소프라노 김성은, 메조소프라노 이지영, 테너 전병호, 바리톤 김기훈, 그리고 이태석 신부의 모교인 경남고등학교 동문 남성합창단인 용마코러스가 출연, 올해 서거 120주년을

맞은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 갈라무대에 이어 주옥같은 한국 가곡을 들려준다. 이탈리아 아레나 아야 오페라극장에서 동양인 최초로 ‘리골레토’ 질다를 열연하여 큰 박수를 받았던 김성은은 플라시도 도밍고 국제콩쿠르 대상, 바로셀로나 비냐스 국제콩쿠르, 이탈리아 토티 달 몬테 국제콩쿠르, 스페인 아라갈 국제콩쿠르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메조소프라노 이지영은 이탈리아 라벤타 국제콩쿠르 1등, 라코니지 국제콩쿠르 2등에 입상한 바 있으며 현재 리즈 벨칸토다솜 대표로 활동중이다. 테너 전병호는 독일 도이치 오퍼 암 라인 뒤셀도르프 극장, 하겐 극장 전속 주역가수를 역임했으며, 바리톤 김기훈은 독일 하노버 슈타츠오퍼 솔리스트를 역임하고 서울국제콩쿠르 1등 및 2019 오페라리아 2위 및 청중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예술감독, 지휘/오충근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사회/정희정(KNN 아나운서)



## 이윤지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5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 442-1941



‘민기 힘들 정도의 비르투오조적인 연주로 피아노를 지배하였다’는 호평을 받은 피아니스트 이윤지 독주회.

서울대학교 음대를 거쳐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윈스터

국립음대에서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이윤지는 2019년 금호아트홀 연세, 부산문화회관에서의 귀국독주회 이후 클라라 슈만 탄생 200주년 기념 연주회,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연주회, Project Ensemble S4 연주회, 김해 영아티스트 피아니스트 편, 한국리스트협회 협주곡 페스티벌, 앙상블 멜랑제 연주회, 피아노음악연구회 특별기획 릴레이 콘서트, WindMarch 콘서트 등에 출연하며 연주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윤지는 현재 부산예고, 창원대학교에 출강하며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부산예술고등학교 제33회 음악 정기연주

일 시 | 5월 20일 목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예술고등학교 음악교육부 514-1232



우리나라 예술 문화의 주역이 될 창의적 예술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부산 예술고등학교가 매년 그동안 닦은 기량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하는 정기연주회.

차세대 음악계를 이끌어갈 음악전공자들이 관현악연주에서부터 합창, 기악 및 성악 솔로, 협연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 프로그램

- 라벨/밤의 가스파르
- 라흐마니노프/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제2번 작품 17
- 차이콥스키/협주곡 라장조 작품 35
- 바그너/오페라 ‘마지막 호미관, 리엔치’ 서곡 등
- 관현악지휘/오창록 • 합창지휘/김성배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스냅(SNAP)

일 시 | 5월 20일 목요일 오후 2:00,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일루전, 미디어아트, 웨도우그래피, 블랙아트, 마임 등 다양한 장르를 마술과 결합해 독창적인 무대언어로 풀어낸 그루장 프로덕션의 미스터리 퍼포먼스 ‘스냅’.

수많은 복선을 통해 서서히 스토리를 풀어가는 미스터리적 요소와 각 장면마다 관객을 몰입시키는 서스펜스 구조를 통해 초현실주의적인 장면을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스냅’은 지난 2016년 초연 후 2016 에덴버러 프린지페스티벌 ‘베스트 프로덕션’ 수상, 2018 시나리 비엔날레 공식 초청작 선정, 2019 브로드웨이 42번가 뉴빅토리 극장 초청 등 국내외 다양한 무대와 수상을 통해 마술의 장르적 한계를 뛰어 넘는 예술성과 작품성으로 평론가들과 관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 제35회 부산청소년예술제 2021 부산청소년음악제

일 시 | 5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사)부산음악협회 634-1295



미래의 음악계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음악축제 ‘2021 부산청소년음악제’.

### 프로그램

- 베토벤/피아노소나타 제 23번 ‘열정’
- 이자이/바이올린소나타 작품 27 ‘발라드’
- 토스티/사월

슈베르트/지옥의 무리들  
 보엠/그랜드 폴로레이즈 작품 16  
 영화 ‘라라랜드’ OST 중 ‘Another day of sun’ 등

- 사회/김석진, 김승아
- 출연/윤지성(피아노), 김아현(바이올린), 이시연(소프라노), 장욱진(피아노), 김민준(바리톤), 김다운(플루트), 인디보컬 핵살, 앙상블 우주멜로디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21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일 시 | 5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천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미래 부산지역 음악계를 이끌어갈 유망주들을 만날 수 있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21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이명근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 6명, 외부 협연자 3명이 함께 하는 무대로, 바이올린을 비롯해 비올라, 첼로, 오보에, 플루트, 클라리넷, 트럼본, 호른, 피아노 등 다양한 악기군의 협주곡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모차르트/바이올린협주곡 제3번 K.216 3악장  
랄로/첼로협주곡 라단조 1악장  
R.스트라우스/오보에협주곡 라장조작품 114 3악장

L.슈포어/클라리넷협주곡 제2번 1악장  
에릭 에바즈/트롬본협주곡 1악장  
드보르작/첼로협주곡 나단조 작품 104 3악장  
타파넬/베버의 '마탄의 사수' 테마에 의한 환상곡  
쇼팽/피아노협주곡 제2번 작품 21 1악장

- 지휘/이명근(수석지휘자)
- 바이올린/김예빈(부산대학교), 이소정(부산대학교 대학원)
- 첼로/이시은(동의대학교), 윤지영(부산대학교)
- 오보에/원예지(부산대학교)
- 플루트/박여진(부산예술고등학교)
- 클라리넷/성예림(부산예술고등학교)
- 트롬본/김성준(경성대학교)
- 피아노/김세영(부산대학교)



## 부산시립무용단 제83회 정기공연 본색本色

일 시 | 5월 27일-28일 목-금요일 오후 8:0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무용단 2021년 첫 정기공연이자 춤 브랜드화 시리즈의 서막을 알리는 무대 '본색本色'.

춤과 삶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공공예술의 답을 찾아가고 있는 이정윤 예술감독의 연출과 안무로, 내면의 근원에 집중하는 민

속성 강한 작품들을 통해 한국춤 전용극장으로 정형화한 무대와 미술, 그리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협연을 통해 완성된 품격으로서의 춤을 만날 수 있다.

1부 '파사, 백송'에서는 한 편의 수목처럼 펼쳐지는 우리 춤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협연을, 2부 '용호상박'에서는 판소리 '적벽가'와 함께 펼쳐지는 용같은 영웅과 범같은 호걸들이 천하를 두고 다투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그려낸다.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BSCC 인문학 콘서트:향연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진정성의 시대'

일 시 | 5월 28일 금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삶의 플러스가 되는 인문학'을 콘셉트로 한 새로운 형식의 강연형 콘서트 'BSCC 인문학'콘서트:향연'. 5월 무대에서는 매월 1억 2천만 건의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해 기업을 컨설팅하고 있는 바이브컴퍼니(구 쉐다음소프트) 송길영 부사장이 코로나 시대를 관통하며 소셜 빅데이터에서 예측하는 시대정신에 대해 이야기한다.

코로나 시대, 공공의 책무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막강해지고 데이터 기반의 투명사회가 되면서 코로나는 '진정성'이라는 의무를 던졌다. 이 시대, 모두가 원하지만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진정성'의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 공연/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58회 정기연주회 창작합창뮤지컬 제비던

일 시 | 5월 29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2천원(거리두기 좌석제)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지난 한 해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으로 활동 공백기를 가졌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2021년 첫 무대로 마련하는 제158회 정기연주회 '제비던'.

수석지휘자 김수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희망으로 가득찬 봄을 맞아 봄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합창곡과 함께 전래동화를 소재로 새롭게 창작된 합창뮤지컬 '제비던'을 선사한다.

- 지휘/김수현 • 작곡/손민혜
- 각본, 연출/김희연
- 연주/라이브밴드 초록구두(건반 이진선, 손민혜, 베이스 김서현, 드럼 최소울), 윤해승(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 소프라노 김미정 독창회 吟味·音美

일 시 | 5월 29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브릴란떼 오페라먼트  
508-0459, 010-9345-0459



오페라와 가곡의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들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브릴란떼 오페라먼트(Brillante Operament) 단장 소프라노 김미정의 무대.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탈리아로 유학, 베르디 국립음원원과 파비아 시립음악원, 파르마 오페라 아카데미, 베르첼리 시립아카데미에서 수학한 김미정은 이태리 '에르바' 국제성악콩쿠르에서 1위 입상 및 '최고의 목소리상(Voce Migliore)'을 수상하는 등 다수 국제성악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운문체적인 가사(詩)의 매력을 가진 가곡과 '뜨거운 열정과 직설적 표현'을 가진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피아노/이수진

부산시민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1 시민뜨락축제**

일 시 | 4월 23일(금)-5월 21일(금)  
매주 금요일 오후 12:20 **야외광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이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마련하는 대표적인 야외무대축제 '2021 시민뜨락축제'.

지난 2017년 (재)부산문화회관과의 통합기념으로 시작된 '시민뜨락축제'는 시민들과의 소통의 장

으로, 일상적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무대를 선보여왔다.

도심 속 작은 문화축제를 지향하는 올해는 '어반 피크닉:힐링 마이 라이브(Urban Picnic: Healing My Life)'를 컨셉으로, 야외 공간에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으로 마련한다.

축제에 앞서 지난 3월에는 부산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클래식, 국악, 재즈, 탱고, 대중음악, 거리극 등 다양한 장르의 10개팀이 선정되었다.

2021 시민뜨락축제는 4월 23일 부산시립청소년 교향악단, 앙상블 별하의 무대를 시작으로 5월 21일까지 5차례 진행된다.

4월 30일에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 작은 감동을 노래로 담아내는 5인조 밴드 '마일스톤즈'와 다수 무대를 통해 부산을 알려나가고 있는 '과르 로마에스트리 성악연구회'가 무대에 선다.

5월 7일에는 부산 출신 연주자들로 자체 작, 편곡 음악으로 관객과 만나온 '도담앙상블'과 10인조 퓨전 혼색선 밴드 'Hugo'가 출연하며, 14일에는 보사노바, 샴바, 스윙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주는 '만지작 작 음악연구회', 연극, 거리극 등 폭 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극단 '코코퍼포밍'이 무대에 선다.

5월 21일에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탱고 앙상블 친친탱고, 인디듀오 나의 노랑말들이 시민뜨락축제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다.

**주요 일정**

**4월 30일** 마일스톤즈(대중음악), 과르로마에스트리 성악연구회(클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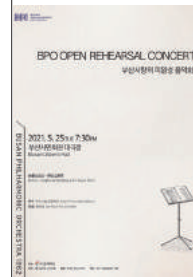
**5월 7일** 도담앙상블(퓨전클래식), Hugo(밴드음악)

**5월 14일** 만지작 작 음악연구회(재즈), 코코퍼포밍(거리극)

**5월 21일** 친친탱고(탱고음악), 나의 노랑말들(대중음악)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IV**

일 시 | 5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2층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연주회를 앞두고 오케스트라가 실제 앙상블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5월 27일 열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75회 정기연주회에 앞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최수열

예술감독과 함께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중 한 곡인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의 리허설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서양음악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곡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은 지난 2012년 이후 9년만에 부산에서 연주되는 작품으로, 혁신과 대담한 시도로 유명한 이 작품을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오케스트레이션과 열정적인 사운드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민회관 부산 문화가 있는 날**  
**배시시 명품극장 '아빠담'**

일 시 | 5월 26일 수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사전예약 필수)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예술의전당 공연실황을 생생한 고화질의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무대.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캐나다 어린이 전문극단 부슈 데쿠주의 놀이음악극 '아빠담'을 상영한다.

'아빠담'은 연출을 맡은 작가 자스민 두베가 오늘날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주목하여 2011년부터 3년간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여러 아티스트들과의 다양한 실험을 통해 만들어낸 작품으로, 일과 아이들, 집안 일 사이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빠담의 모습을 유쾌하게 그려냈다.

특히 대사를 최소화하고 놀이와 움직임을 통해 어린아이들의 일상과 아이들을 돌보는 아버지의 모습을 섬세하게 다루면서 따뜻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75회 정기연주회**  
**열정**

일 시 | 5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서양음악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작품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으로 마련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75회 정기연주회 '열정'.

특히 이번 '환상교향곡'은 2012년 이후 9년만에 부산에서 연주되는 작품으로,

혁신과 대담한 시도로 유명한 이 작품을 최수열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열정적인 사운드로 만날 수 있다.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연주에 앞서 1부에서는 핀란드방송교향악단 부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김한의 협연으로 핀란드의 현대작곡가 키모 하콜라가 쓴 흥겨운 클라리넷 협주곡을 들려준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유기 구라모토 콘서트**  
**Hopeful Tomorrow**

일 시 | 5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멜로디로 듣는 이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리는 작곡가이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뉴 에이지 피아니스트 유기 구라모토 콘서트.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함께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음악을 통한 잔잔한 위로와 내일의 희망을 전할 이번 무대에서는 그의 대표곡 및 신곡을 콰르텟 편곡의 연주를 통해 기존 음원과 색다른 무대로 만날 수 있다.

- 콰르텟 연주/김현치(바이올린), 이윤하(첼로), 김일지(플루트), 강신일(클라리넷)



### 제14회 소프라노 신정순 제자 향상음악회 아름다운 오월에

일 시 | 5월 1일 토요일 오후 5:00,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M&M 성악연구회 010-4434-6605



동의대학교 예술종합 콘서바토리 외래교수, 부산 예중·부산예고 강사, 서울 바로크와 현대가곡 연구회 회원, 부산우리가곡부르기 회장으로 있으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신정순의 제자들이 펼치는 향상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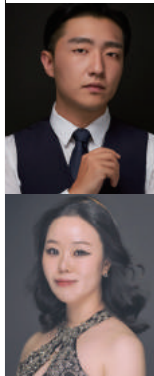
**오후 5:00**  
 소프라노 김지현, 이진희, 임정희, 임미나, 이선미, 조현실, 김명희, 윤희숙, 김승윤, 김진, 피아노 조은지

**오후 7:30**  
 소프라노 이예원, 정희정, 김주연, 고가현, 윤희지, 테너 류신기, 바리톤 고승현, 카운터테너 조형근, 피아노 김아영

- 지도교수/소프라노 신정순
- 기획연출/바리톤 고봉수

### 제26회 짜장콘서트

일 시 | 5월 1일 토요일 오후 4:00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석당박물관 로비  
 입장료 | 전석 1만원(사전예약, 선착순 20명)  
 문 의 | 음악풍경 987-5005



초청 솔리스트로 테너 방주원, 청년음악가로 소프라노 윤은신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내마음(김동진 곡), 아름다운 5월에(슈만 곡), 5월의 어느 아름다운 날처럼(지오르다노 오페라 '안드레아 세니에') 등 다양한 곡과 더불어 음악풍경 전속 앙상블 '프로뮤지카'가 베토벤 '비창' 3악장, 벨라스케스 '베사베무쵸', 엔니오 모리코네 '러브 어페어' 등 우리 귀에 친숙한 곡을 들려준다.

특히 지역 창작음악의 활성화를 위해 창작가곡 '이대연가(권태우 사.곡)'를 소개하며, 널리 알려진 대중가요를 노래에 얹힌 사연과 함께 들려주는 '톡톡(Talk Talk): 나의 노래방 1번' 코너에서는 가수 조하문의 '이 밤을 다시 한 번'을 노래한다.

- 진행/이진이

### 국립남도국악원 초청 기획공연 우리랑 진도개비

일 시 | 5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진도의 십리바위 설화와 도깨비 이야기를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국립남도국악원 초청 어린이 국악극 '우리랑 진도개비'. 십리바위 설화는 남들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모험과 시련의 과정을 거쳐 영웅이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극 속에서는 아기장수 '우리'가 진도 특유의 풍류와 신명을 가지고 있는 장난꾸러기 도깨비 '진도개비'를 만나 전설의 천년나무를 찾아가는 여정을 신명넘치는 음악과 노래로 그려내고 있다.

- 예술감독/심인택
- 연출/김병호
- 작곡, 음악감독/박경훈
- 대본/김지현

### 에델현악사중주단이 들려주는 프로코피에프의 피터와 늑대

일 시 | 5월 5일 수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일반 2만원, 어린이(13세 이하) 5천원  
 36개월 미만 무료  
 문 의 | E-mail(edelstringquartet@gmail.com)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에델현악사중주단이 들려주는 어린이음악극 '피터와 늑대'.

음악의 본고장 유럽에서 활동하던 젊은 연주자들로 결성된 에델현악사중주단은 지난해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베토벤 현악사중주 전국 연주회를 기획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프로코피에프의 '피터와 늑대'는 해설과 오케스트라로 구성되는 어린이를 위한 음악극으로, 극 중 인물들을 특정 악기와 주제로 표현하여 '관현악 입문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에델현악사중주단의 연주와 함께 동화구연으로 음악극이 진행된다.

### 제51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정기연주회

일 시 | 5월 6일-7일 목-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010-6563-6692



현재 부산지역 피아니스트 32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들의 모임인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정기연주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은 지난 1996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두 차례의 정기연주회를 통해 새로운 레퍼토리를 소개하며 젊은 음악인들의 등용문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정기연주회가 열리는 이틀동안 작가 김형선, 원윤옥, 권양숙, 김미향이 참여하는 특별전 '봄꽃'이 열린다.

**6일 Piano Essay**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독주와 듀엣, 8Hands 등 다양한 연주로 들려준다.

#### 프로그램

-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30번 작품 109
- 쇼팽/발라드 제1번 사단조 작품 23
- 모차르트/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K.448
- 멘델스존/한여름 밤의 꿈 서곡 작품 21 등 수곡
- 연주/서미라, 강성은, 김경영, 정보근, 김지민, 김문주, 이수민, 양진경, 최조은, 김보은, 김정배, 송대현, 박윤희, 이현주, 서혜리, 최영주, 김예지, 김효정

#### 7월 20세기 음악의 집중탐구 시리즈 IV '현대피아노음악의 밤'

리게티, 카발레프스키, 볼컴, 조희주, 양희영, 김수아 등 국내외 현대 작곡가들의 작품을 통해 20세기 음악을 집중탐구해본다.

#### 프로그램

- 조희주/푸가와 판타지
- 리게티/무지카 리체르카타
- 카발레프스키/론도 가단조 작품 59
- 볼컴/밤의 키스
- 양희영/Restoration 등 수곡
- 연주/최민경, 이수은, 김혜선, 김민정, 정년경, 나예지, 강남길, 최진현, 김성숙, 심정연, 이아양, 김영지, 이진성, 안준희, 김병기

### 제518회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창작곡의 밤

일 시 | 5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무료(사전예약 필수)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419-5571~4



올해 영도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로 선정된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문연주자들로 결성된 미래필하모니오케스트라는 지난 2008년 부산시도오케스트라로 첫 발을 내딛은 후 2011년 지금의 이름으로 재창단,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고 있다.

상임지휘자 박성은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김성광, 김수진, 권태우, 하순봉 등 부산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이 영도를 주제로 창작곡을 들려준다.

- 지휘/박성은

### 스페이스 음 5월 음악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후 8:00 스페이스 음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스페이스 음 557-3369 www.spaceum.kr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예술’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통해 지역 공동체와 소통해온 스페이스 음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고마움’을 주제로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무대를 마련한다.

**7일(제415회) 싱어송라이터 차은결의 ‘청춘에 대하여’**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중인 싱어송라이터 차은결의 무대.

우리들의 청춘을 생각하며 지나간 청춘, 지금의 청춘, 미래의 청춘을 추억 속 노래로 이야기한다.

**프로그램**  
 청춘(산울림), 소녀, 휘파람(이문세), 해화동(동물원), 바람의 노래(조용필), 장미의 미소(신인수), 엄마의 일기(왁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서른 즈음에(김광석), 내 나이 마흔살에는 (양희은), 오래된 노래(스탠딩예그), 나쁜사람(차은결)

**14일(제416회) Bo Li Quintet ‘We Speak Jazz’**  
 트럼페트 BO LI, 기타리스트 김경모, 피아니스트 민주신, 베이스리스트 김대경, 드러머 Piotr Pawlak로 구



성된 Bo Li Quintet의 재즈 무대.

21일(제417회) 지림씨의 재즈로망스 일곱 번째 ‘한 쌍의 젓가락 행진곡’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아름다운 재즈음악으로 꾸며지는 사랑 가득한 무대.

- 피아노, 편곡/하지림
- 베이스/김대경 • 드럼/김우진
- 피아노/구민경 • 보컬/박선우
- 보컬, 기타/이영준

**28일(제418회) 최혜리 바이올린 리사이틀 ‘Musical dedication, 음악적 헌정’**  
 현재 미국 아이다호 주립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최혜리의 무대.

**프로그램**  
 이자이/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소나타 제2번 작품 27  
 모차르트/바이올린 소나타 제32번 K.454  
 백은숙/바이올린 솔로를 위한 시간의 상대성  
 프랑크/바이올린 소나타 가단조  
 • 피아노/김은정 • 작곡/백은숙

### 국립부산국악원 명품 레퍼토리 토요일신명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3:00 (일 공연없음)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8천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국립부산국악원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님 치는 가무악의 무대 ‘토요일신명’

**8일 프로그램**  
 생소병주 ‘수룡음’, 처용무/학무, 경기·영남민요, 해금독주 ‘비(悲)’(김영재곡), 부채춤, 삼도농악가락

**15일 프로그램**  
 피리독주 ‘상령산’, 장구춤, 가야금병창, 동래학춤, 태평소와 사물놀이, 검무

**22일 프로그램**  
 산조, 춘앵전/무산향, 시조, 태평무, 해금·아쟁중주 ‘접동새’(계성원 곡), 동해안무속가락

**29일 연희부 정기공연**

### 제60회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일 시 | 5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피아노듀오협회 010-3815-3190



지난 1990년 원로 피아니스트 제갈삼 명예교수에 의해 국내에서 최초로 창단된 피아노듀오단체인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피아노 듀오음악의 보급과 활성화에 힘써온 부산피아노듀오협회는 그동안 신인연주자를 발굴하고 다양한 무대를 제공함으로써 클래식 음악의 계승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졸라, 비제, 거쉬인, 라흐마니노프, 리스트 등 피아노 듀오곡을 들려준다.

- 연주/박희정&박선아, 박필은&김소형, 서보람&장서희, 김보은&손선경, 양정은&이수진, 박지은&전숙영, 김주리&김성희, 최민경&임효진

### 영도문화예술회관 수요상설공연 onStage 사랑 나눔 클래식&아름다운 영화음악 QUARTET DE COMMA

일 시 | 5월 12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영도문화예술회관이 올해 수요상설 프로그램으로 마련하는 온스테이지 무대 ‘사랑 나눔 클래식&아름다운 영화음악’.

이번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지, 이희진, 비올리스트 이현원, 첼리스트 장영정, 퍼쿠션니스트 박병진 등 부산에서 활동중인 전문연주자들로 구성된 콰르텟 드 콤마를 초청, 언더그라운드 탱고, 영화 ‘여인의 향기’, ‘사운드 오브 뮤직’ 수록곡 등 우리 귀에 친숙한 영화음악과 춤곡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위로의 무대를 선사한다.



##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 문화 수요공감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5일, 19일 공연없음)  
국립부산국악원 예지홀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8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국립부산국악원이 매년 전통예술인에게 공연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해온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 문화 '수요공감'.

12일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초청공연  
세월과 함께 잊힌 '관현맹인(管絃盲人)'의 전통을 재현하고자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이 지난 2011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창단한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초청무대.

26일 해금양상블 셋답 두 번째 이야기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부수석 김현희, 영남대학교 교수 이승희,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해금수곡 김혜빈 등 3명의 해금주자로 구성된 해금양상블 셋답의 무대.

## 5월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5일, 19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4



12일(제739회) 솔리스텐 앙상블 정기연주회  
첼리스트 정준수를 주축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현악 연주자들로 구성된 솔리스텐 앙상블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그리그, 엘가, 차이콥스키 등 아름다운 현악 앙상블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 그리그/홀베르크 모음곡 작품 40
- 엘가/현을 위한 서주와 알레그로 작품 47
- 차이콥스키/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48
- 음악감독, 첼로/정준수
- 악장/전후국
- 바이올린/손은혜, 탁서연, 안현정, 고은비, 우소라, 임솔빈, 정아람, 조유리
- 비올라/박주연, 윤솔샘, 손주연, 백나경

- 첼로/김기량, 박예리나
- 콘트라베이스/이정우



26일(제740회) M&M 성악연구회 '2021 부산 한국기곡의 밤'

부산지역 성악가들이 꾸미는 한국 가곡의 밤으로, 우리 귀에 친숙한 유명 가곡에서부터 부산을 소재로 한 가곡과 민요, 가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

며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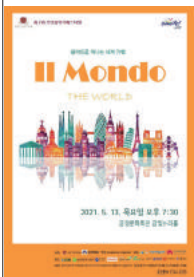
### 프로그램

청산에 살리라, 물방아, 신아리랑, 남향정경, 풀꽃 술잔 나비, 시간에 기대어, 연, 마중, 못잊어, 경북 궁타령, 청산은 깊어 좋아라, 사랑의 꿈, 잔향 등 수곡

- 소프라노/신정순, 양라윤, 박지은
- 메조소프라노/손혜은
- 테너/박재화, 방주원
- 바리톤/고봉수, 박윤규
- 베이스/김정대
- 피아노/김아영

## 제7회 부산성악가페스티벌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기행 Il Mondo

일 시 | 5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문의 | 솔오페라단 1544-9373



오페라의 대중화를 위해 앞장서온 솔오페라단이 새봄을 맞아 펼치는 음악축제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기행'.

드라마 삽입곡으로 잘 알려진 '백학(The Cranes)'을 비롯해 러시아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방금 들린 그대 음성',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 아리아' 등 세계 각국의 민요와 가곡,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넘버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여행조차 쉽지 않은 지금, 음악을 통한 세계여행을 관객들과 함께 떠난다.

## 박정희 피아노 리사이틀 베토벤 소나타 전곡연주회 VIII 자유와 이상

일 시 | 5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전석 3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서정적이면서도 풍부한 감성적 기질로 친근한 음악미를 품은 연주자이자 명확한 해석과 음악적 균형으로 강력한 마력을 뽐내며 끊임없는 열정을 보여주는 피아니스트 박정희 독주회.

박정희는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음악을 향한 무한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동아대학교 부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는 4년간에 걸친 베토벤 소나타 전곡 연주회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무대로, 베토벤 소나타 30번과 31번, 32번을 들려준다.

## 더 블로섬 열네 번째 이야기

일 시 | 5월 15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더블로섬 010-6516-9838



피아니스트 심하정, 플루티스트 김윤희, 바이올리니스트 정다희, 안은지, 비올리스트 김가민, 첼리스트 김나래 등 6명의 전문연주자로 구성된 더블로섬의 무대.

지난 2014년 창단 연주회 '더블로섬 첫 번째 이야기'

기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더블로섬은 매년 1~2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부산에서 흔히 연주되지 않는 곡들과 특별한 편성으로 프로그램을 선정, 부산 실내악 음악의 발전과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올해 서거 100주년을 맞는 작곡가 생상의 작품으로, 목관앙상블의 매력을 보여주는 '타란텔라' 작품 6'을 비롯해 하차투리안, 무진스키의 곡을 들려준다.

- 게스트/클라리네티스트 백동훈

## 부산예술고등학교 제33회 국악 정기연주

일 시 | 5월 18일 화요일 오후 7: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예술고등학교 음악교육부 514-1232



창의적 예술 인재 양성의 요람 부산예술고등학교가 매년 그동안 닦은 기량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하는 정기연주회.

차세대 국악계를 이끌어갈 국악전공자들과 더불어 현재 전문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이 함

께 출연, 다양한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정악합주 '염불 타령 국악', 대금독주 '원장현류 대금산조', 실내악 '무학'(이정호 곡), 실내악 '얼씨구야'(김백찬 곡), 민요의 향연(임교민 곡), 관현악합주 '화랑'(백규진 곡), 모듬북협주곡 '타'(이경섭 곡)

• 지휘/백규진 • 지도/정세희

## 제78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마음을 담아봄 콘서트

일 시 | 5월 19일 수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051-220-5812



서부산권 시민들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온 '을숙도 명품콘서트' 2021년 첫 무대.

을숙도 명품콘서트는 서부산권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을숙도문화회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지난 2011년부터 진행해

온 기획시리즈 공연으로, 그동안 국내외 유명 연주자와 지역의 실력과 연주자를 초청, 수준높은 무대를 선보임으로써 지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을숙도 명품콘서트 2021년 첫 무대는 현재 경북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중국 텐진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객원지휘자로 있는 지휘자 백진현이 지휘하는 부산로얄필하모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해온 소프라노 박현진과 테너 이승우, 대한민국오페라

대상 어린이합창부문 수상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햇살나무 중창단이 협연자로 출연, 서정적인 선율로 들려주는 아름다운 봄의 소리를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한다.

절제된 화려함 속에 진지함과 열정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로 봄의 음악세계에 초대할 지휘자 백진현은 현재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예술감독으로 있으며 동서대학교 대학원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그리그/페르귄트 모음곡 제1, 2번

비제/아를르의 여인 제2번

임금수/강 건너 봄이 오듯

조두남/벚꽃노래 등

• 지휘/백진현

• 연주/부산로얄필하모니오케스트라

• 소프라노/박현진 • 테너/이승우

• 중창/햇살나무 중창단



##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문지영과 슈베르티아데

일 시 | 5월 25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4



금정문화회관이 매일 마지막 화요일 마련하는 브런치 콘서트 5월 무대.

부조니 국제콩쿠르에서 아시아 출신으로는 최초로 1위를 차지한 피아니스트 문지영과 함께 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공연정보지 '클럽 발코니' 편집장인 이지영의

맛깔스러운 해설로 슈베르트의 밤으로 꾸며진다.

피아니스트 문지영은 2014년 스위스 제네바 국제콩쿠르에 이어 이듬해 부조니 국제콩쿠르에서 연이어 우승을 차지한 후 국내외 유수 오케스트라와의 협연과 세계적인 무대에서의 독주회를 통해 가장 주목받는 젊은 음악가이자 피아니스트로 명성을 쌓고 있다.

## 2021 영화의전당 마티네콘서트 맛 칼럼니스트 박상현의 음악 미식여행

일 시 | 5월 26일 수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영화를 좋아하는 맛 칼럼니스트 박상현의 진행과 함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음식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와 음악을 들어보는 특별한 무대.

박상현은 음식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을 탐구하고 추적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맛 칼럼니스트로, 현재 부산푸드필름

페스타(BFFF) 프로그래머로 활동하며 KBS 2TV '최고의 밥상'에 출연하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영화 속에서 사람 목소리와 음악을 제외한 모든 소리를 진짜처럼 창조하는 일을 하는 영화 음향분야 전문가인 폴리야티스트 정성원의 폴리 퍼포먼스 '당신의 관능을 자극하는 음식 ASMR'을 들려준다.

## 김미연&김미진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일 시 | 5월 29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김미진 010-9390-4271



피아니스트 김미연, 김미진이 함께하는 듀오무대. 동아대학교 기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음악치료학(AVPT)을 전공한 김미연은 현재 창원 시립합창단 반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동아대학교 기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Wien Meisterkurs에 참가, Diplom을 취득한 김미진은 그동안 독주 및 앙상블 무대를 비롯해 헝가리시립오케스트라, 서울오케스트라, 부산 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졌으며 현재 부산예술고등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슈베르트, 베토벤, 라흐마니노프, 슈트라우스, 막스 레거 등 다양한 작곡가의 곡을 듀오연주로 들려준다.



### 을숙도문화회관 2021 문화가 있는 날 을숙도 마중-마음이 가는 중 가야금과 양금-弄絃同音농현동음

일 시 | 5월 29일 토요일 오후 4: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을숙도문화회관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2021 문화가 있는 날' 5월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레파토리 개발과 이해하기 쉬운 연주로 대중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한 단채로 다가가고 있는 일파가야금합주단이 전통 국악에서부터 가요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지난 1996년 4월 창단된 후 현재 장혜숙 단장을 중심으로 가야금 전공자들로 구성된 일파가야금합주단은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있다.

### 작곡가 이승은 귀국 작품 발표회 비평적으로 듣기

일 시 | 5월 30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이승은 010-4099-2229



부산대학교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독일로 유학 폴크방 예술대학교 작곡 석사과 미국 버펄로 뉴욕주립대학교 오르간 석사 및 작곡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작곡가이자 오르가니스트 이승은의 작품 발표회. 독일 유학시절, 전후 시대 유럽 정치 음악 작곡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은 이승은은 이번 무대에서 2019-20 홍콩시위, 2020년 미국 BLM 운동 등 국제사회 운동과 한국의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해 음악적 언어로 표현한 작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렉처 콘서트로 꾸민다.

- 연주/박승훈(트럼펫), 유지훈(클라리넷), 장예지(플루트)

### (재)영화의전당 2021 명품 클래식 III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5월 30일 일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한국인 최초로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독주회. 선우예권은 인터내셔널 저먼 피아노 어워드, 방동프라이즈(베르비에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1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샌다이 음악 콩쿠르 1위, 윌리엄 카펠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플로리다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등 무려 8회에 달하는 국제 콩쿠르 입상 경력으로 한국인 피아니스트 최다 국제 콩쿠르 우승 기록도 갖고 있다. 뛰어난 연주실력은 물론이고 한결같은 겸손한 태도로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을 사로잡은 선우예권은 이번 무대에서 모차르트와 쇼팽의 곡을 들려준다.

## 연극

### 연극 오늘도 극한직업

일 시 | 3월 4일(목)-5월 9일(일)  
평일 오후 7:00, 주말·공휴일 오후 2:30, 5:00(월요일 공연 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사파리와 롤러코스터가 결합된 신개념 놀이기구라는 명칭이 무색하리만큼 파리만 날리는 사파리익스프레스. 어느날 멸종위기의 나무늘보 수컷이 코스타리카에서 발견되면서 딱 한 마리밖에 없는 사파리의 암컷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사파리익스프레스에 찾아온 일생일대의 기회에 승진을 꿈꾸는 구해호와 포상금으로 영화감독 꿈을 노리는 정대성, 동물들의 대모를 꿈꾸는 손희영, 그리고 갓 입사한 막내 온리원까지 각기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무늘보의 짝짓기 의지를 불태우는데... 과연 이들은 짝짓기를 무사히 성공시키고 꿈을 이룰 수 있을까.

- 작·박강록 · 연출·장세윤

### 연극 나의 PS파트너

일 시 | 3월 18일(목)-5월 16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전석 3만원(만 18세이상 관람가)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지성, 김아중 주연의 동명의 영화로도 유명한 '나의 PS파트너'. 원작의 큰 틀을 무대로 가져오되 극적 재미와 등장인물간의 감정선, 현실감 있는 연애담을 더욱 밀도감 있게 그려낸 '나의 PS파트너'는 영화보다 더 리얼하고 거침없는 무대로 차원이 다른 19금 로코무대를 선사한다. 전 여친에게 새 남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열등감 폭발해 잠못 이루던 현승에게 어느날 야릇한 전화가 한 통화 걸려온다. 5년 연애로 관계가 시들해진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전화하려다 잘못 전화한 윤정은 수화기 너머 각자의 연애와 일상 등 속깊은 대화를 나누다 현승과 점점 가까워지는데...

### 코믹극 택시안에서

일 시 | 4월 7일(수)-Open run  
수-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화요일 공연 없음)  
부산해바라기소극장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평일 공연 예매시 60%, 주말·공휴일 예매시 51% 할인)  
문 의 | 미니티켓 1600-1716



택시 안에서 벌어지는 요절복통, 좌충우돌 코믹연극 '택시안에서'. 그동안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해 본 하영과 소희는 집으로 가는 택시안에서 운명 같은 만남으로 불같은 사랑을 시작하지만 결국 서로를 지키지 못하고 두 손을 놓게 된다. 사랑에 상처를 받은 소희는 한국을 떠날 결심을 하고 너무나 늦게 사랑을 깨달은 하영은 소희를 잡으러 공항으로 향한다. 마지막 인생이 걸린 택시에 탑승한 하영과 그런 그를 공항으로 데려다 주는 택시기사 민수, 과연, 하영은 제시 기간에 공항에 도착할 수 있을까?

## 2021 이은결 MAGIC&ILLUSION

일 시 | 5월 1일 토요일 오후 2:00, 6:00,  
2일 일요일 오후 1:00, 5:00 **KBS부산홀**  
입장료 | R석 6만6천원, S석 5만5천원  
문의 | ㈜WSM 1566-5490



상상을 뛰어넘는 스펙터클한 퍼포먼스와 콘서트의 열기를 방불케하는 생동감으로 관객들을 사로잡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의 매직콘서트 '매직&일루션'.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매지션이자 일루션 아티스트인 이은결은 지난 1996년 첫발을 내딛은 후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국제미술대회에서 그랑프리를 거머쥐는 등 국내 최초, 국내 유일, 국내 최다 그랑프리 수상이라는 영예와 함께 미술 장르를 뛰어넘는 도전과 실험으로 대한민국 미술의 대중화를 이끌어왔다.

이번 무대에서 다년간의 콘서트 경험을 바탕으로 선정된 베스트 퍼포먼스를 그만의 독특한 연출로 구성한,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코믹연극 검정고무신

일 시 | 5월 5일(수)-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 **웅천지랄 소극장**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예매시 1만3천원)  
문의 | 미니티켓 1600-1716



더욱 탄탄해진 스토리로 다시 찾아온 버라이어티 코믹 휴먼 드라마 '검정고무신'.

지난 1960~70년대 힘들었던 시대, 가족과 이웃의 따뜻한 사랑을 웃음과 감동으로 그려낸 '검정고무신'은 가난했던 그 때 그 시절

한 가족사를 통해 현재 우리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부모 없이 할머니와 어렵게 살아가는 삼남매, 진학도 포기한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첫째 영일, 학교 가는데 세상에서 제일 싫은 철부지 말썽쟁이 둘째 영삼, 여자라는 이유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살림만 하는게 늘 불만인 똑순이 세째 영실, 늘 춤고 배고픈 것이 일상이 영일네 가족의 고군분투기가 진한 감동을 전해준다.

## (재)영화의전당 개관 10주년 기념 라이브 더빙쇼 이국정원

일 시 | 5월 8일 토요일 오후 2:00, 6: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의 | (재) 영화의전당 780-6060



영화 '삼거리극장', '러브픽션'의 전계수 감독의 연출로 탄생한 새로운 컨셉의 라이브 더빙쇼 '이국정원'. 배우들과 뮤지션들의 라이브 더빙으로 사운드를 되살리고 사라진 영상을 무대공연으로 채움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라이브 더빙쇼는 특히 고전영화 복원의 의미를 새롭게 현대화시키며 지금의 관객들에게 생동감 있는 영화체험을 선사한다.

특히 영화에서 사람 목소리를 제외한 모든 소리를 만들어 내는 폴리아티스트가 직접 간단한 소품들을 이용해 차 소리, 발걸음 소리, 천동 소리 등을 더빙해 보는 재미를 더한다. 이번엔 선보이는 '이국정원'은 1958년 우리나라 최초로 홍콩과 합작해 만든 영화로, 이후 필름을 분실했다가 2013년 홍콩에서 찾은 후 소리 없이 영상으로만 복원했다.

## 뮤지컬 위키드

일 시 | 5월 20일(목)-6월 27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2:00, 7:00(월요일 공연없음)  
**드림씨어터**  
입장료 | VIP석 15만원, R석 13만원  
S석 10만원, A석 8만원, B석 6만원  
문의 | 드림씨어터 1833-3755



브로드웨이의 고전 '오즈의 마법사'를 유쾌하게 뒤집은 블록버스터 뮤지컬 '위키드' 부산 초연무대. 지난 2003년 브로드웨이 초연 이후 18년째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위키드'는 누구도 이야기 하지 않았던 오즈의 두 마녀 엘파바와 글린다의 우정과 사랑, 그리고 선과 악, 성장, 용기에 관한 매력적인 이야기로, 그동안 전 세계 16개국 100여개 도시에서 6천만명이 관람한 브로드웨이의 대표적인 히트작이다. 특히 단 한 번의 압전도 없는 54번의 매끄러운 장면 전환과 연기를 뽐어내는 거대한 타임 드래곤 등의 화려한 무대 메카니즘, 웅장하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관객들을 마음을 사로잡는다.

## 2021 문화가 있는 날 초록마술사의 튼튼마술여행

일 시 | 5월 26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입장료 | 무료(사전예매 필수)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영도문화예술회관이 지역민을 위해 마련하는 '초록마술사의 튼튼마술여행'.

야채를 싫어하고 건강에 유해한 인스턴트식품을 좋아하는 편식쟁이 대한이가 어느날 초록마술사를 만나게 되고 초록마술사로부터 마술을 배우는 조건으로 편식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데... 특히 이번 작품은 어린이들의 편식예방과 위생, 식사예절 등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신기한 마술을 통해 알려줌으로써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부두연극단 승부의 종말

일 시 | 5월 25일(화)-29일(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액터스소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부두연극단 611-6616, 010-7450-3582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의 작가 사무엘 베케트의 또 다른 문제작 '승부의 종말'. 인간의 삶에 대한 부조리를 독특한 문체와 방식을 통해 극적으로 표현하면서 현대 부조리극의 창시자라 불리는 베케트 본인이 가장 좋아했던 작품으로 알려진 '승부의 종말'은 막판에 다다른 인간들의 절망과 염원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부조리극의 대가라 불리는 연출가 이성규의 연출로,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생각해보는 인류의 종말에 대한 상상력을 무대 위에 펼쳐보인다.

- 작/사무엘 베케트
- 연출/이성규
- 출연/오정국, 윤준기, 이동희, 이수경
- 기획/강경희 • 미술/안준영



무용

**김옥련발레단 2021 프로젝트  
-부산 갈매기 2탄  
부산시민 장기려**

일 시 | 5월 7일 금요일 오후 8:00,  
8일 토요일 오후 2:00, 5:00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2만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김옥련발레단 626-9486



현재 울속도문화회관 상주 단체, 부산시 예술전문단체로 활동하며 창작발레 활성화와 예술교육 프로그램 창출에 주력해온 김옥련발레단의 2021 프로젝트 무대.

2019년 '시인 김민부'에 이어 부산 갈매기 2탄으로, '한국의 슈바이처', '우리 시대의 마지막 성자'라 불리는 장기려 선생의 삶을 조명해보는 '부산시민 장기려'를 초연무대로 선보인다.

평생 사회봉사와 의료사업 발전에 헌신했던 장기려 선생은 국내 최초의 민간주도 의료보험조합인 '청심자운동'을 창시하여 가난한 환자들을 구제하는 등 평생을 인술을 통한 인간애를 실천해왔다.  
• 예술감독/김옥련 • 작, 연출/유상홍

영화

**영도문화예술회관 수요요일공연 onStage  
SAC On Screen-춤이 말한다**

일 시 | 5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입장료 | 무료(사전예매 필수)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예술의전당 우수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만나는 SAC On Screen '춤이 말한다'. SAC On Screen은 10대 이상의 카메라 앵글로 만들어내는 생동감 넘치는 고화질 영상으로 아티스트들의 생생한 표정과 몸짓을 만날 수 있다.

국립현대무용단이 제작한 '춤이 말한다'는 벨기에의 세계적인 무용수 피평 툴에서 활동하는 김설진, 탁월한 현대무용수인 동시에 다재로운 안무로 주목받는 차진엽, 대한민국 비보이 1vs1 대회 챔피언 디퍼(김기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김용걸,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 김지영, 동래한량무와 승무로 유명한 한국 전통춤의 오철주 등 각 분야의 무용가들이 출연해 그들의 춤과 이야기를 통해 동시대 무용을 되짚어보는 랙트 퍼포먼스 형식의 공연이다.

콘서트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아름다운 가사가 들리는 콘서트**

일 시 | 5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전석 4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서 민간우수 공연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가사가 들리는 콘서트'. '한국의 리키 마틴' 가수 홍경민과 청아하고 맑은 보이스의 뮤지컬 배우 강

지혜, 감성적인 보이스와 실력으로 차세대 만능 소리꾼으로 사랑받고 있는 국악인 이봉근, 국악과 서양악기의 크로스오버에 장르를 넘나드는 상상력까지 겸비한 밴드 '두 번째 달이' 출연, 과거의 명곡을 오늘날 감성에 맞게 재해석한 뉴트로 콘서트로 관객들과 만난다.  
특히 그리운 그 시절의 사랑과 이별, 추억이 담긴 아름다운 노래들을 통해 관객들을 추억의 그 시절로 소환한다.

행사

**트롯페스타:미스터 트롯 4인&레전드 전국투어 콘서트**

일 시 | 5월 22일 토요일 오후 2:00, 7:00  
KBS부산홀  
입장료 | R석 11만원, S석 9만9천원  
A석 8만8천원  
문 의 | 와이에이치그룹 02-540-0907

• 출연/설운도, 신인선, 김수찬, 나태주, 류지광

**THE GREATEST:전율  
정동하X소향 부산콘서트**

일 시 | 5월 22일 토요일 오후 7: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장료 | VIP 11만원, R석 9만9천원  
S석 8만8천원, A석 7만7천원  
문 의 | 좋은콘서트 1833-4581

**2021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영도에서 떠나는 유럽 예술여행II**

일 시 | 5월 1일(토)~29일(토)매주 토요일 오전 10:00  
(22일은 오전 10:30 소공연장)  
영도문화예술회관 동백홀  
입장료 | 무료(사전 전화예약 필수)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4



서양 문화예술의 시작이라는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문화예술의 찬란한 꽃을 피운 낭만시대까지의 음악, 미술 등 작품과 시대별 예술가들에 대해 알아보는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으로, 문화유산해설사 김성민의 친근한 해설로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

- 1일(토) 고대 로마제국 음악·미술·건축물 감상
- 8일(토) 고대 그리스·로마 제국의 음악·미술·작품 감상
- 15일(토) 중세시대의 인물과 음악 감상
- 22일(토) 고대 그리스~중세시대의 음악 공연 감상
- 29일(토) 르네상스시대의 음악·미술·건축물 감상

**2021 영화의전당 예술아카데미  
정두환의 클래식 살롱**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5:00(26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리허설룸  
입장료 | 무료(선착순 예약, 참여료 향상을 위해 회비 있음)  
문 의 | 영화의전당 공연예술팀 780-6031



문화유목민 정두환의 강연 및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 살롱.

매주 수요일마다 공연예술 강의를 듣고 공연을 보고, 그에 대한 감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강좌로, 5월에는 '금관악기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과 함께

26일 해설이 있는 살롱콘서트 '뮤직인 색소폰 앙상블' 무대가 펼쳐진다.

- 5일 오후 5:00 리허설룸 금관악기 이야기 1
- 12일 오후 5:00 하늘연극장 금관악기 이야기 2
- 19일 오후 5:00 리허설룸 금관악기 이야기 3
- 26일 오후 7:30 하늘연극장 해설이 있는 살롱 콘서트 '뮤직인 색소폰 앙상블'

## 5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화요일 오전 11:00,  
20일 목요일 오후 7:00 **시네바움**  
입장료 | 수강료 1만 5천원  
(소수 정원제, 문자·예약 필수)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3일 '햄릿: To be or not to be- 읽기' 비현실적 상상력:마술적 사실주의

• 강사/김해룡(문학박사, 前 한일장신대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4일, 11일, 18일, 25일 윤산의 논어아카데미  
(※ 수강료 무료)

• 강사/윤산 김수청(부산대 교양교육원 외래교수, 부산가톨릭대 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10일 클래식을 탐하다 '새로운 음악, 아리스 노바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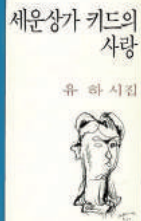
• 강사/이기병(작곡가, 동의대 음악학과 교수)

15일 오전 10:00 부산을 걷다 '동래읍성을 찾아서'  
(※ 장소/동래역 만남의 광장)

• 강사/우주호(국토&환경연구소 소장, 행정학 박사)

17일 하이쿠, 근대를 혁신하다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의 사생(寫生)미학'

• 강사/안수현(문학박사, 부산가톨릭대 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20일 목요일의 브런치  
'김비주&이나열의 詩토크 세운사가 키드의 사랑 (시인 유하, 문학과지성사)'  
(※ 수강료 무료)

24일 화가와 돈의 애증관계: '살바도르 문디'의 화가 다빈치의 경우

• 강사/윤자정(동의대 디자인조형학과 교수)

31일 패션, 명화를 스타일링하다 '빈의 카사노바, 화가, 클림트 그림에 깃든 패션 이야기'

• 강사/진경옥(패션 디자이너, 동명대 명예교수)

## 제163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어버이 사랑 주제 詩 낭송회

일 시 | 4월 17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동서 9층 문화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알바트로스시낭송문화회  
010-6367-0149

## 김옥균의 힐링클래식명곡여행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오후 1:00  
**롯데백화점부산본점 문화센터**  
입장료 | 3개월 15만원  
문 의 | 김옥균 010-6367-0149  
롯데백화점문화센터 810-2351~2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음악 공연실황 영상감상회.

주요 프로그램

드보르작 '어머나가 가르쳐주신 노래, 스메타나 '나의 조국' 중 '몰다우강'  
모차르트 '오보에협주곡, 하이든 '시계교향곡'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포스터 '꿈길에서'  
프로코피예프 '늑대와 소년,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마르티니 '사랑의 슬픔, 사랑의 기쁨'  
라벨 '볼레로, 드뷔시 교향시 '바다, 파헬벨 '캐논'  
비제 카르멘 환상곡, 홀스트 '혹성 모음곡' 등

## 5월 오페라바움 영상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오후 1:3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1만원(중급반 이상 1만5천원)  
문 의 | 오페라바움 722-9597



오페라 전문 음악감상실인 오페라바움이 마련하는 5월 영상감상회. 매주 월요일에는 교향곡, 협주곡 콘서트 실황을, 매주 금요일에는 모차르트, 베토벤 오페라를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상세한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7일(금) 모차르트 오페라 '루치오 실라'  
14일(금) 모차르트 오페라 '크레타왕 이도메네오'  
21일(금) 모차르트 오페라 '티토황제의 자비'  
28일(금) 베토벤 오페라 '피델리오'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클래식 아는 척 하기

일 시 | 5월 8일(토)-29일(토) 매주 토요일 오전 9:00  
영도문화예술회관 제4연습실  
입장료 | 무료(사전 전화예약 필수)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4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클래식 아는 척 하기'.

지역 초·중등 학생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감상을 통한 예술적 접근을 통해 청소년의 자발적인 문화향유 기회를 마련하고자 마련됐으며 악기, 작곡가, 무용, 클래식 감상 등 4개 주제로 나누어 교육과 감상이 함께 진행된다.

일정

8일(토) 클래식악기(현악기) 특징과 소리 알아보기  
15일(토) 시대별 클래식 음악가와 곡 감상하기  
22일(토) 무용기본동작과 세계의 무용곡 감상하기  
29일(토) 백스테이지 투어와 현악 앙상블 공연 관람

## 제35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일 시 | 5월 15일(토)-31일(월)  
부산예술회관,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문 의 | (사)부산예총 631-1377, www.artpusan.or.kr



매년 5월, 청소년의 달에 개최되는 '부산청소년예술제'는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발표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고,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해왔다.

주요 일정

15일(토)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청소년건축상마당  
30일(일) 부산예술회관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30일(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청소년무용예술제  
29일(토)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청소년시낭송대회  
24일(월)-29일(토) 부산예술회관 학생그림공모전  
25일(화)-28일(금) 부산시민회관 학생사진공모전  
27일(목)-31일(월) 부산예술회관 부산청소년연극제  
22일(토) 부산예술회관 청소년가요 및 댄스경연대회  
22일(토) 부산예술회관 청소년, 영상으로 소통하다  
21일(금) 부산문화회관 챔버울 부산청소년음악제  
29일(토) 부산시민회관 청소년꿈다락만들기대회



전시

###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갤러리 기획전 네버랜드 사운드랜드 권병준 소리 산책

일 시 | 1월 29일(금)-8월 22일(일)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갤러리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 부산박물관 2021 제1회 신수유물 소개전 나전, 미술이 되다. 근대 나전칠기

일 시 | 2월 16일(화)-6월 13일(일)  
부산박물관 부산관 2층 미술실  
문 의 | 부산박물관 610-7111



부산박물관이 지난해 구입한 유물 중 근대 나전칠기 6점을 선별, 시민들에게 첫선을 보이는 신수유물 소개전.

### 고은사진미술관 독일 국제교류처(ifa) 해외교류전 아르노 피셔·포토그래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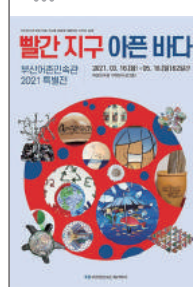
일 시 | 2월 27일(토)-6월 2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베를린 출신의 사진가이자 사진 교수였던 아르노 피셔(1927-2011)의 업선된 작업 전반을 한국 최초로 선보이는 고은사진미술관 해외교류전. 아르노 피셔는 통일 독일 전후에 걸쳐 사진의 기록적 가치를 성실히 수행한 독일 현대사진사의 중요 작가이자 교육자로, 특히 통일 전 동독에서 시작한 그의 특별한 사진교육은 통일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세계 저명 사진가들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독일 사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 전시는 독일 국제교류처(ifa)와의 두 번째 협업 전시로, 아르노 피셔의 다양한 작품 활동 시기를 7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 부산어촌민속관 2021 특별전 빨간 지구 아픈 바다

일 시 | 3월 16일(화)-5월 16일(일)  
부산어촌민속관  
문 의 | 해양자연사박물관 550-8882



‘기후 위기와 지구 온난화’라는 주제로 다양한 업사이클링 공예작품을 통해 재활용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는 특별전. 한국생활아트디자인협회 ‘예모팩토리’와 함께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지구 온난화 등으로 고통받는 동물들의 아픔을 표현한 업사이클링 작품 20여점을 비롯해 해양쓰레기를 주워서 예술작품으로 만든 비치코밍 작품 10여점, 숲·생태 자연물을 이용해 생활소품으로 재탄생시킨 공예작품 20여점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다. 업사이클링은 버려지는 비닐, 천, 목재 등 다양한 쓰레기와 폐기물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해 쓸모있는 생활용품이나 예술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거대한 일상 : 지층의 역전

일 시 | 3월 31일(수)-8월 22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대전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송주섭 작 '세대'

1980년대 의미있는 역사적 발자취를 남긴 형상미술의 의미를 되돌아보고자 마련한 기획전. 형상미술은 기존 구상회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주의에 입각한 대상의 묘사와는 달리, 대상의 왜곡과 변형, 강렬한 색채를 통해 현실에 대한 자각과 표현을 시도한 것으로, 1980년대에 주요한 화두였던 '지금, 여기 우리의 이야기'를 토대로 이 시기에 활발히 전개된 민중미술 계열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미술사 속 형상미술이 지니고 있는 그 의의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정립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에서 형상미술이 내포하고 있는 키워드와 주제 의식을 알아본다.

### 과야-보통의 날들

일 시 | 4월 1일(목)-5월 30일(일)  
KT&G상상마당 부산 갤러리  
입장료 | 5천원  
문 의 | KT&G상상마당 부산 갤러리 070-8893-0892-4



밤을 지나는 과야(過夜) 시간 속에 조용히(quiet), 탐색한다(quest)라는 뜻을 담은 작가 과야의 작품전. 부산 최대 규모로 열리는 전시로, 즉흥적인 터치로 소소하지만 소중한 보통의 일상을 기록한 원화

및 드로잉 130여점이 소개된다.  
• 관람시간/오전 11:00~오후 8:00(월요일 휴관)

### 친근하고도 신비한 아세안의 동물들

일 시 | 4월 30일(금)-8월 1일(일)  
아세안문화원 기획전시실  
문 의 | 아세안문화원 775-2024

### 타워아트갤러리 특별기획 2021 꽃그림전 '축제'

일 시 | 4월 26일(월)-5월 29일(토)  
타워아트갤러리  
문 의 |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 2021 제9회 청년작가전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일 시 | 5월 11일(화)-5월 16일(일)  
5월 18일(화)-5월 23일(일)  
금련산역갤러리  
문 의 | 부산미술협회 632-2400



### 누군가 아픈 밤

정인 지음 / 호밀밭  
260p / 1만 4천원

정인 소설가(부산소설가협회 회장)가 사람들의 삶을 연민으로 바라보고, 가장 아픈 곳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소설집에는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았음직한 불안하고 슬픈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화마'는 집에 불이 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화재를 유발한 것으로 의심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내가 느끼는 불안과 실망을 담았다. '누군가 아픈 밤'에는 자식들에게 버림받고서도 내내 자식을 기다리는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소리의 함성'에는 중간소음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아무 곳에도 없는'에는 아버지가 아낀 집이 팔려 원룸으로 변해버린 후 완벽하게 사라진 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식의 시간'에는 한국인 아버지 베트남 어머니를 둔 혼혈여성과 재일교포 남성이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슬픔이 그려진다. '꽃 중에 꽃'은 평생 작은덕으로 핏박을 당하면서도 제 자리를 지킨 할머니가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에 당한 능욕을 속으로 삭이며 죽어가는 사연이다. 각 작품을 이끌어가는 화자는 타인의 아픈 삶을 보면서 자신의 상처를 돌아보고, 그 상처가 남긴 흔적을 쓰다듬는다. 그 연민의 시선이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 딜쿠샤, 경성 살던 서양인의 옛집

최지혜 지음 / 해화117  
320p / 1만 8천원

저자는 국내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근대 건축 실내 재현 전문가이다. 근대 건축물의 실내를 재현할 때 집과,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의 내력까지 살피서 구현하는 일을 한다. 실내를 재현했을 때, 건축물이 다 전하지 못하는 그 시대의 일상문화를 조금은 더 가깝게 볼 수 있다. 딜쿠샤는 산스크리트어로 '기쁜 마음의 궁전'이라는 뜻이다. 서울 종로구 행촌동 1-88번지에서 1923년 정초석을 놓은 서양식 2층 붉은 벽돌집이다. 일제강점기 경성에서 미국인 남편과 영국인 아내가 아들과 함께 살던 살림집이다. 국가등록문화재 제687호로, 오래전부터 서울의 오래된 골목길을 답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집이다. 이 책은 딜쿠샤 실내 재현의 과정과 그 살림살이들의 내력을 담고 있다. 집주인 앨버트 테일러는 기업가이며 AP통신사 특파원이었다. 딜쿠샤는 3·1운동과 일제의 제암리 학살사건을 알린 해외통신원의 집, 일제에 의해 강제 출국당한 뒤에도 이곳을 못 잊어 시신으로 돌아와 외국인묘지에 잠든 이의 집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근대 건축의 시발점에 선 중요한 건물 중 하나이기도 하다. 동서양의 물건과 문화가 공존했던 딜쿠샤로 초대하는 책이다.



### 홀로 선 자들의 역사

김동완 지음 / 글항아리  
400p / 1만 9천 800원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남긴 누정에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 퇴계 이황의 안동 고산정을 비롯해 경주 독락당 계정, 담양 면양정, 거창 요수정, 양양 의상대, 삼척 죽서루, 울진 망양정, 파주 화석정 등 역사와 이야기를 품은 전국 35곳 누정을 소개한다. 여행길에서, 혹은 역사기행에서 만나는 누정에 담긴 사연들을 사진과 함께 보다 보면, 불쑥 그곳으로 가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책이다. 깎아지른 해안가 절벽, 혹은 유유히 흐르는 강변, 시원한 계곡 등에 자리 잡은 누정 공간은 경치가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탁 트여 있다. 하지만, 일부러 그곳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띄이지 않으려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듯 보이기도 한다. 주로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한 이들이 정자를 지었던 역사를 살펴보면, 그곳에 자리한 까닭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자의 주인들은 세상에 등을 돌리고 탁 트인 자연을 바라보며 말 못할 사연과 때론 억울한 울분의 심정을 삭이곤 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탁월한 자연 경관 속에 홀로 서 있는 텅 빈 건물로 보일지도 모른다. 긴 역사를 간직한 채 홀로 서있는 누정에서 옛사람의 흔적을 더듬어 보는 책이다.



## (재)부산문화재단, 부산공업고등학교, (사)향기로운문화동행과 업무협약 체결



(재)부산문화회관(대표 이용관)이 (재)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동수), 부산공업고등학교(교장 안주태),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이사장 보혜스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재)부산문화회관은 (재)부산문화재단과 공연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공연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추진되는 지역 공연장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5월부터 공연장 공연기획 및 무대기술 부문을 대상으로 교육생 모집 및 선발을 거쳐 체계적인 교육과 공연장 실습을 병행한다. (재)부산문화회관은 지난 2019년에도 (재)부산문화재단과 지역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브랜드콘텐츠 공모 선정작인 창작오페라 '그 이름 먼 구름'(루체테음악극연구소), 청년연출가 공모 선정작 '소나기-잠깐 내린 비'(연출 김평수)를 공동지원한 바 있다.

공업계 특성화고등학교인 부산공업고등학교와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청소년들의 예술교육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재)부산문화회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부산시립예술단의 우수한 콘텐츠를 활용,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공연 관람기회 확대를 통해 미래 잠재고객 발굴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청량사(기장군 소재)가 운영하는 (사)향기로운문화동행과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연·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과 온오프 홍보활동 등 공연·문화 예술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5월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평소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맞춤형 공연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이 5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5월 10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금정고등학교 공연을 시작으로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극단이 부산지역 학교와 도서관, 생활사박물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들과 만난다.

### 일정

- 5월 10일(월) 15:00 금정고등학교\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5월 13일(목) 16:30 북구육아지원센터\_부산시립교향악단 목관5중주 '보육교직원을 위한 힐링타임'
- 5월 18일(화) 10:00 부산진초등학교\_부산시립극단 '봄봄'
- 5월 22일(토) 17:00 사하도서관\_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5월 26일(수) 10:10 명지초등학교\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5월 26일(수) 19:00 구덕도서관\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5월 27일(목) 14:00 사상생활사박물관\_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2021년도 문화예술아카데미 BSCC 온라인 클래스 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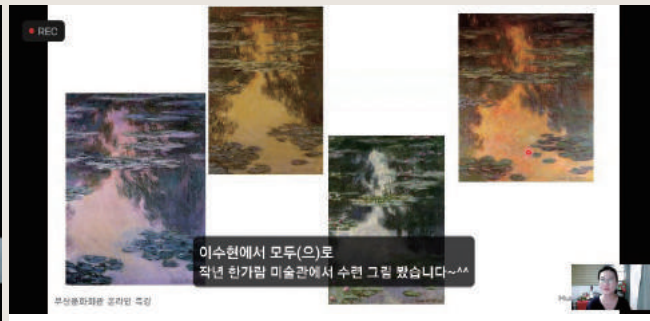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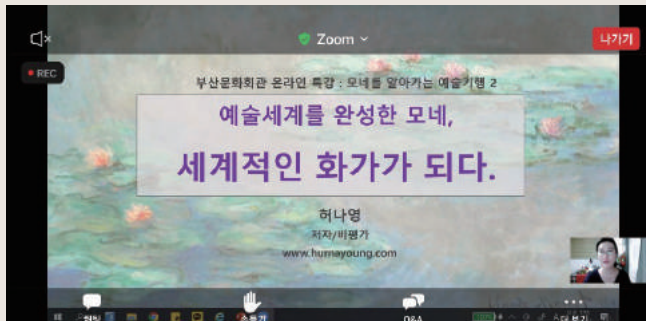
■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www.bscc.or.kr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신규 온라인 강좌를 개설한다. 이번 온라인 강좌는 코로나19 시대에도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창의적이면서도 수준높은 강좌를 제공한다. 모든 강좌는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 '줌(ZOOM)'을 통해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되며 질의응답, 채팅 등을 활용한 수강생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개설되는 온라인 강좌는 모두 5개 강좌로, 수필가 김종희의 '시를 읽은 그대에게'를 시작으로 허나영, 장원 예술학 박사가 진행하는 '아티스틱 미술, 판타스틱 라이프', 사진작가 뿌리야김의 '일상의 기록, 감성사진', 춤 비평가 이상현의 '오늘의 춤, 내일의 춤', 그리고 전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전진의 '세계의 지휘자를 만나다' 등 다양하면서도 흥미로운 강좌가 준비되어 있다. 우선 지치고 메마른 일상에 촉촉한 단비 같은 인문강좌 '시를 읽은 그대

에게'는 삶의 발견으로서의 문학과 인문학을 통해 얻는 지혜와 통찰을 시작으로 문학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 보며, 재미있고 유쾌한 교양 미술 '아티스틱 미술, 판타스틱 라이프'는 두 명의 예술학 박사가 각자의 스타일로 소개하는 지적 공감 미술사로, 다양한 화가의 작품을 통해 미술 속 즐거움을 찾아 본다. '일상의 기록, 감성사진'에서는 일상을 기록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감성사진을 찍기 위한 작가의 감각적인 사진 노하우에 대해 살펴 보며, '세계의 지휘자를 만나다'에서는 지휘자의 역할과 세계적인 지휘자 및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명 지휘자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춤, 내일의 춤'에서는 춤의 시작부터 춤의 장르, 춤이 담고 있는 의미까지 춤의 흐름에 대해 살펴 본다.

이번 강좌의 수강신청은 4월 30일부터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 받으며, 수강 신청자에 한해 사전에 참여 URL 주소를 전달, 이를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주)베스타텍 등 4개 기업 법인회원에 가입

■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고객개발팀 607-6114

기업의 품격을 높이고 법인가족을 위한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에 (주)베스타텍, (사)향기로운문화동행, (주)더블유웨딩, 더리본주식회사 더파티 등 4개 기업이 가입했다. 지난해 초 신설된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은 지난해 2곳에 이어 올해 초 9개 업체가 가입하면서 법인회원에 대한 지역 기업 및 단체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은 연회비에 따라 루비 레드(Ruby Red), 에메랄드 그린(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Sapphire Blue) 등 3가지 등급으로 나뉘며 다양한 혜택과 함께 (재)부산문화회관만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채널을 통해 기업홍보를 진행할 수 있다.



2021년 문화예술아카데미

# BSCC 온라인 클래스



다양한 강좌를 비대면으로 만나는 온라인 프로그램입니다.

\* 모든 강좌는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 '줌(ZOOM)'으로 진행됩니다.

구분	강좌명	일정	수강료
실시간 라이브 강좌 ZOOM	시를 읽은 그대에게	5. 21. ~ 6. 11. (금), 4회 14:00 ~ 15:30	20,000원
	아티스틱 미술, 판타스틱 라이프	5. 25. ~ 6. 29. (화), 6회 19:30 ~ 21:00	30,000원
	일상의 기록, 감성사진	5. 27. ~ 6. 17. (목), 4회 14:00 ~ 15:30	20,000원
	세계의 지휘자를 만나다	6. 3. ~ 6. 24. (목), 4회 19:30 ~ 20:30	20,000원
	오늘의 춤, 내일의 춤	6. 3. ~ 6. 17. (목), 3회 10:00 ~ 11:30	-

**수강접수** 접수기간 4. 30. (금) ~ 선착순 마감

**접수방법**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아카데미 > 강좌안내 및 접수)

# 부산문화회관의 Facility Operation ‘첫인상’을 책임지는 시설운영팀

이형국 (재)부산문화회관 시설운영팀 주임

## 채워가는 하루를 위한 준비

출근길 차 안은 언제나 그렇듯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준비의 첫 단계이다. 오늘 하루 계획된 시설물 공사와 법정 안전점검 업무에 대해 이미지트레이닝을 하며 적당한 긴장감과 함께 회관으로 향한다. 주차장 도착. 주차를 하는 순간부터 시설운영팀원으로서 나의 하루는 시작된다. 우선 주차장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한 후 사무실까지 가는 도중 회관 곳곳을 돌아보며 지난 밤 사이 문제는 없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본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지나다니는 길에 불과하지만 나에게 있어 이 곳은 관객들의 안전과 쾌적한 공연관람이 이뤄져야 하는 공간이기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 주의깊게 살펴본다.

## 회관의 첫인상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어느 장소에 가게 되었을 때 그 곳의 시설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우와 여기 멋지다” 혹은 “이건 좀 불편한데?”하는 등의 첫인상을 가지게 된다.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 시설운영팀에서는 ‘우리 회관의 첫인상은 내가 결정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설관리 업무에 항상 최선을 다한다.

시설운영팀의 업무를 짚어보자면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사 관련 계획 수립, 보수 공사 감독 및 진행, 법정 안전검사 및 점검, 설비(공조, 보일러, 전기, 소방 등) 운영 등이 있다. 업무 파트별로 보면 크게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행정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평소에는 각 파트별로 최선을 다하다가도 함께 일을 할 때는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한다.





## 신뢰는 일관성에서 온다

본격적인 업무의 시작은 공연일정 확인과 오늘 예정된 공사 내용 확인이다. 공사를 하더라도, 혹은 유지 보수작업을 하더라도 공연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으로 공연이나 관객의 공연 관람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기에 공연일정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우리 팀에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진행되는 고정 업무가 있다. 바로 일일 시설물 점검 순찰이다. 말 그대로 매일 회관 전체를 돌며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오늘 같지만 매일 점검을 하다 보면 분명 어제는 괜찮았던 펌프가 고장이 났다든지, 고장 난 전등이 있다든지 하는 여러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듯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이 있기에 안정적으로 회관이 운영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쾌적한 환경의 공연장을 관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점검 순찰을 이야기하다 보니 잊을 수 없는 일화가 생각난다. 지난해 엄청난 피해를 낳았던 태풍 마이삭 상륙을 앞두고 시설물 점검 순찰에 나섰던 우리 팀원들이 익사할 뻔 했던 한 시민을 구조한 일이다. 한밤중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시설물 점검차 시민회관 주위를 순찰하던 팀원들은 하천에 빠진 시민의 '살려달라'는 구조요청 소리를 듣게 됐고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소방호수를 이용해 시민이 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시간을 벌었다. 이런 적극적인 대처로 시민은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었고 이같은 선행이 알려지면서 우리 팀원들은 부산소방본부장 표창, 부산동구청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다 보니 소중한 시민의 생명까지 살리게 되었다”는 시설운영팀원들의 당시 수상 소감처럼 일상적인 습관들이 모여 오늘이 만들어지듯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더욱더 기본에 충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 안전은 고객과의 가장 중요한 약속

시설운영팀이 가장 최우선시 하는 것 중 하나가 안전이다. 여기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질병에 대한 안전은 물론 재해재난 상황이 왔을 때 대처하는 안전 모두가 포함된다. 우리 팀에서는 재해재난 대비와 더불어 시설의 안전을 위한 법정안전교육,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훈련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앞장서서 방역에 힘쓰고 있다. 월 1회 이상 전문 방역업체를 통한 공연장 전체 소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시로 하루 2회 이상 주요 집객장소 및 사무실 등에 자체 소독을 하고 있다. 특히 공연이 있는 날이면 더욱 방역을 강화하여 공연 전부터 공연장 출입문 손잡이, 테이블, E/V 버튼 등 표면 소독을 실시하고 공연 시작과 공연 중, 그리고 공연이 끝난 후에는 환기를 시켜 쾌적하고 안전한 공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설운영팀에서는 날이 갈수록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어서 고객들이 안심하고 공연장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시설운영팀 이형국 주임** 기계공학을 전공했던 저는 평소에도 공연장에 관심이 많아 부산문화회관에서 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바람이 현실이 되어 현재 이 곳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일하고 싶었던 곳에서 일하는 만큼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그렇기에 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회관을 항상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애정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 같은 사랑이 관객들에게도 전달되길 바라며 쾌적한 공연장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 2021-22

2021-22 BSCC  
SEASON PROGRAM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2021-22 시즌 프로그램

b s c c  
s e a s o n  
p r o g r a m

부산을 품다 \_ 세상을 잇다 \_ 예술로 함께 하다



## (재)부산문화회관 2021-22 시즌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 연극/뮤지컬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워 호스 War Horse>**

문화 | 중극장 4.24.(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NT-Liv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세익스피어 고전에 대한 한국적 재해석  
**낭만희극 <심이야>**

시민 | 소극장 9.17.(금)~9.18.(토)  
금 7:30pm 토 3:00pm  
R 4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전설의 리틀농구단**

문화 | 중극장 10.9.(토) 15:00pm, 19:00pm  
R 60,000원 S 50,000원



가해자와 피해자의 숨막히는 심리게임  
**<흑백다방>**

시민 | 소극장 10.23.(토)~10.24.(일) 3:00pm  
R 4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리어왕 King Lear>**

문화 | 중극장 10.23.(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NT-Liv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얼어버린 두 손의 천재음악가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문화 | 중극장 11.5.(금)~11.6.(토)  
금 7:30pm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스승의 삶을 흠친 제자의 딜레마

**<단편소설집>**

시민 | 소극장 12.17.(금)~12.18.(토)  
금 7:30pm 토 3:00pm  
R 4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 무용/발레

2021 BSSC 제작공연 시리즈 I

**이정운 안무 신작 <MOTI/어디로부터>**

문화 | 대극장 9.3.(금)~9.5.(일)  
금 8:00pm 토-일 5: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2021 BSSC 제작공연 시리즈 II

(재)부산문화회관 & 파리 테아트르 드 라 빌 /  
리옹댄스비엔날레 공동제작

**안은미컴퍼니 <A-드래곤>**

문화 | 중극장 11.26.(금)~11.27.(토)  
금 7:30pm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한국 발레 대표 국립발레단의 12월 선물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시민 | 대극장 12.1.(수)~12.2.(목) 7:30pm  
V 80,000원 R 60,000원 S 40,000원



### 음악/클래식

한국을 대표하는 형제 피아니스트의 첫 듀오무대

**피아니스트 임동민&임동혁 듀오 리사이클**

문화 | 대극장 3.6.(토) 5:00pm  
R 90,000원 S 70,000원 A 50,000원 B 30,000원



빈 필과 베를린 필의 매력적 만남

**비엔나 & 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

문화 | 대극장 6.22.(화) 7:30pm  
V 100,000원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성악과 기악의 정점에서 만나는 바로크 음악

**조수미 & 이 무지치(I Musici)**

문화 | 대극장 12.18.(토) 5:00pm  
V 150,000원 R 120,000원 S 90,000원 A 70,000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 2021 제야음악회

문화 | 대극장 12.31.(금) 10: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패키지 제외



### 오페라

#### BSCC Cine Opera Choice - 베르디 완전정복 I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문화 | 중극장 5.1.(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BSCC Cine Opera Choic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 BSCC Cine Opera Choice - 베르디 완전정복 II 브리젠츠 오페라 페스티벌 <리골레토>

문화 | 중극장 6.12.(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BSCC Cine Opera Choic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 BSCC Cine Opera Choice - 베르디 완전정복 III 라 스칼라 <아이다>

문화 | 중극장 9.4.(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BSCC Cine Opera Choic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 2021 BSCC 제작공연 시리즈 III

##### <피가로의 결혼>

문화 | 대극장 10.22.(금)~10.23.(토)

금 7:30pm 토 5:00pm

V 100,000원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 패키지 제외



#### 마린스키극장 오페라단 내한 공연 콘서트 오페라 <이고르 공>

시민 | 대극장 11.10.(수) 7:30pm

V 90,000원 R 70,000원 S 50,000원



#### BSCC Cine Opera Choice - 베르디 완전정복 IV

##### 베를린국립오페라 <맥베스>

문화 | 중극장 12.4.(토) 3:00pm

All Seats 20,000원

※ BSCC Cine Opera Choice는 공연실황을 녹화하여 상영하는 작품입니다.



### 국악

#### 전국팔도 핫한 탈꾼들의 제대로 보여주는 탈춤판 천하제일탈공작소 <가장무도>

문화 | 중극장 4.3.(토) 5:00pm

R 30,000원 S 20,000원



#### 압도적인 감흥, 세상 어디에도 없던 음악 <잠비나이 부산 콘서트>

시민 | 소극장 4.30.(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 다원예술

#### 브로드웨이를 매료시킨 미스터리 퍼포먼스 <스냅 SNAP>

문화 | 중극장 5.20.(목) 2:00pm 7:30pm

R 30,000원 S 20,000원



### 콘서트

#### 한국인이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2021 유기 구라모토 콘서트

시민 | 대극장 5.28.(금) 7:3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B 20,000원

※ 패키지 제외



#### 그때 그 시절 우리들의 영원한 히어로 샘머 나이트 콘서트

시민 | 대극장 8.21.(토) 5:0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 감동을 넘어선 마법의 시간 2021 디즈니 인 콘서트

시민 | 대극장 8.28.(토) 5:00pm

V 100,000원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 패키지 제외



### BSCC 인문학\* 콘서트 : 향연

####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행복의 조건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문화 | 중극장 3.26.(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공연 부산시립합창단





어디서 살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간)  
**건축가 유현준**

문화 | 중극장 4.30.(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공연 부산시립합창단



진정성의 시대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문화 | 중극장 5.28.(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공연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미술사학자 유홍준**

문화 | 중극장 7.30.(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공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부산시립무용단



영원한 광대 김명곤의 풍류정담(風流情談)  
**공연예술인 김명곤**

문화 | 중극장 9.24.(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공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부산시립무용단



뇌과학에 묻다, 예술의 미래는?  
**뇌과학자 김대식**

문화 | 중극장 10.29.(금) 11:00am  
All Seats 20,000원  
공연 부산시립교향악단



### 가족·어린이·청소년

공연장 예술진로교육 프로그램  
**스쿨 온 스테이지 School on Stage**

문화 | 중극장 5.26.(수) 11.17.(수)  
10:00am 2:00pm  
All Seats 10,000원



온가족과 함께하는 판타스틱 모험의 세계  
**<신비아파트> 뮤지컬 시즌 4**

시민 | 대극장 6.19.(토)~6.20.(일)  
토 11:00am 2:00pm 4:30pm  
일 11:00am 2:00pm  
R 66,000원 S 55,000원 A 44,000원  
※ 패키지 제외



백희나 작가의 원작을 넘어선 감동  
**뮤지컬 <알사탕>**

문화 | 중극장 7.10.(토)~7.11.(일)  
7.16.(금)~7.18.(일) 금 4:00pm  
토일 11:00am 2:00pm 4:00pm  
All Seats 50,000원(동등이석)  
※ 패키지 제외



생존경쟁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우정  
**<XXL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문화 | 중극장 9.9.(목)~9.10.(금)  
목 7:30pm 금 2:00pm 7:30pm  
R 30,000원 S 20,000원



### 문화가 있는 날

당신을 웃게 하는 또 다른 감동, 스크린으로 만나다  
**(재)부산문화회관 <문화가 있는 날>**

시민 | 소극장 4.28.(수), 5.26.(수), 6.30.(수),  
7.28.(수), 9.29.(수), 10.27.(수) 11.24.(수),  
12.29.(수) 7:30pm  
All Seats Free



### 지역프로젝트

부산 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  
**2021 시민뜨락축제**

시민 | 야외무대 상반기(4~5월)  
하반기(9~10월) 12:20pm  
All Seats Free



비대면 시대, 온라인으로 즐기는 배시시한 콘텐츠  
**2021 배시시 프로덕션 온택트**

배시시(BSCC)TV 2021년 상반기  
BSCC 온라인 플랫폼 Free Streaming



새로운 시선, 차세대 예술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문화 | 시민 8.13.(금)~8.24.(화)  
평일 7:30pm, 주말-공휴일 5:00pm  
R 20,000원 S 10,000원



실내악의 향연, 음악의 온기를 전하다  
**2022 (재)부산문화회관 챔버 페스티벌**

문화 | 중극장&챔버홀 2022.1.18.(화)~1.30.(일)  
평일 7:30pm 주말 5:00pm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공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산시립예술단 2021 시즌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 부산시립교향악단\_정기연주회

#### 제571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신년음악회

**문화 | 시민** 1.14.(목)~1.15.(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이경숙&김규연



#### 제572회 정기연주회 선후배

**문화 | 중극장** 3.12.(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첼로 정재윤 | 바이올린 김덕우



#### 제573회 정기연주회 슈트라우스 어게인!

**시민 | 대극장** 4.2.(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임윤찬 | 작곡 김택수(2021 올해의 예술가)



#### 제574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말러 [하반기 연기]

**문화 | 대극장** 4.30.(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객원지휘 이병욱



#### 제575회 정기연주회 열정

**시민 | 대극장** 5.27.(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클라리넷 김한



#### 제576회 정기연주회 비제의 교향곡 제1번

**문화 | 중극장** 6.18.(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이민형 | 피아노 이윤수



#### 제577회 정기연주회 프랑스식 뉘앙스

**문화 | 대극장** 7.16.(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객원지휘 아드리앙 페뤼송



#### 제578회 정기연주회 합창

**문화 | 대극장** 9.16.(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소프라노 박은주 |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테너 국윤중 | 베이스 장세종 | 합창 부산시립합창단



#### 제579회 정기연주회 스키

**시민 | 대극장** 10.14.(목)~10.15.(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바이올린 조진주



#### 제580회 정기연주회 보헤미안

**문화 | 대극장** 11.4.(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이민형 | 피아노 홍민수



#### 제581회 정기연주회 모차이즘

**문화 | 대극장** 11.26.(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객원지휘&피아노 김대진



#### 제582회 정기연주회 시작 아니면 끝

**문화 | 중극장** 12.16.(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최희연  
작곡 김택수(2021 올해의 예술가)



### 부산시립교향악단\_기획연주회

####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I

**문화 | 대극장** 1.12.(화) 7:30pm  
All Seats 5,000원



#### 제76회 청소년협주곡의 밤

**시민 | 대극장** 2.18.(목) 7:30pm  
All Seats 5,000원



####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II

**문화 | 중극장** 3.10.(수)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III**  
시민 | 대극장 3.30.(화)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I**  
문화 | 챔버홀 4.16.(금) 7:3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IV**  
시민 | 대극장 5.25.(화)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II**  
문화 | 챔버홀 7.2.(금) 7:3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클래식은 내친구**  
문화 | 대극장 8.10.(화) 3:30pm 7:3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I**  
문화 | 중극장 8.27.(금) 9:00pm  
All Seats 10,000원



제77회  
**청소년협주곡의 밤**  
문화 | 중극장 9.30.(목)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V**  
시민 | 대극장 10.12.(화) 7:30p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III**  
문화 | 챔버홀 10.21.(목) 7:3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우리아이음악회**  
문화 | 대극장 11.11.(목)~11.12.(금) 11:00am  
All Seats 5,000원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II**  
문화 | 중극장 12.3.(금) 9:0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VI**  
문화 | 중극장 12.14.(화) 7:30pm  
All Seats 5,000원



### 부산시립합창단\_정기연주회

제181회 정기연주회  
**뮤지컬 칸타타 '아! 나의 조국!'**  
문화 | 대극장 5.13.(목)~5.14.(금)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시놉시스, 작곡 이진실 | 지휘 이기선



제182회 정기연주회 / 대규모 합창음악회  
**위로의 메시지**  
문화 | 대극장 6.24.(목)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지휘 이기선 | 바리톤 이광근 |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합창 부산시립합창단, 춘천시립합창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해설이 있는 현대 합창의 밤 III**  
문화 | 대극장 10.7.(목) 7:30pm  
All Seats 10,000원  
지휘 이기선



제184회 정기연주회  
**정적연주기법에 의한  
헨델의 메시아 대연주회**  
시민 | 대극장 12.9.(목) 7:30pm  
All Seats 10,000원  
지휘 이기선 | 반주 카메라타안티카(고음악 전문 연주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강혜정 | 알토 양송미 | 테너 조성환 | 베이스 박흥우



### 부산시립합창단\_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1  
**새봄을 꿈꾸며**  
문화 | 대극장 3.4.(목) 7:30pm  
All Seats 10,000원  
객원지휘 이상길



● Previe

가요합창음악회  
**2021 Summer Fantasy '시간(時間)'**

문화 | 대극장 7.22.(목) 8:00pm  
All Seats 10,000원  
지휘 임희준 | 연주 이삼열 밴드 외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3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10.25.(월)~10.28.(목) 6:00pm  
All Seats Free  
출연 부산시립합창단 외 부산지역 아마추어 합창단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2  
**Healing for you**

문화 | 대극장 11.9.(화) 7:30pm  
All Seats 10,000원  
객원지휘 이수은



부산시립무용단\_정기공연

제83회 정기공연  
**한국춤 명품 컬렉션 '본색'**

문화 | 대극장 5.27.(목)~5.28.(금)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안무 이정윤



제84회 정기공연  
**출극 '동백, 부부'**

문화 | 대극장 11.18.(목)~11.19.(금)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안무 이정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_정기연주회

제209회 정기연주회  
**명품 재창작 관현악**

문화 | 대극장 3.18.(목)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제210회 정기연주회  
**전통음악의 밤**

문화 | 중극장 6.10.(목)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집박 김수일



제211회 정기연주회  
**국악칸타타**

문화 | 대극장 9.8.(수)~9.9.(목)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 작곡 김은혜 | 작시 이청산



제212회 정기연주회  
**명인·명창·명기의 무대**

문화 | 중극장 10.21.(목)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판소리 박성희, 정선희 | 태평소 김경수 | 가야금 송영남, 하지희  
※ 대통령상 수상자 무대



제213회 정기연주회  
**2021 송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12.28.(화)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_특별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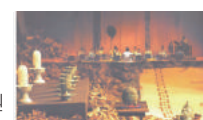
**협주곡의 밤**

문화 | 대극장 4.22.(목)~4.23.(금)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해금 서은영, 안은경, 김준희, 윤해승(22일)  
가야금 광수은, 오해향, 윤경선, 최미란(23일)



**신축다례연(辛丑茶禮宴)**

문화 | 대극장 5.7.(금) 7:30pm  
1층 20,000원 2층 10,000원  
지휘 김정수 | 행다시연 (사)한국차인연합회 부산지원  
처용무 부산시립무용단 | 시조 이아미



스타 프로젝트  
**두개의 바람 二風異流**

문화 | 중극장 7.8.(목)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시민 | 대극장 8.11.(수) 7:30pm  
1층 10,000원 2층 5,000원  
지휘 김종욱  
노래 박성희 | 태평소 김상연 | 가야금 김혜진



제46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문화 | 대극장 11.24.(수) 7:30pm



부산시립극단\_정기공연

제69회 정기공연  
**a point of CONTACT**

문화 | 중극장 4.9.(금)~4.11.(일)  
평일 7:30pm 주말 5:00pm  
R 20,000원 S 5,000원  
작·연출 김지용





제70회 정기공연  
**벚꽃 동산**

문화 | 중극장 7.1.(목)~7.3.(토)  
 평일 7:30pm 토 5:00pm  
 R 20,000원 S 10,000원  
 원작 안톤 파블로비치 체홀 | 객원연출 강성우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찰스 디킨즈 '크리스마스 캐롤'**

문화 | 대극장 12.23.(목)~12.24.(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원작 찰스 디킨즈 | 각색/작사/연출 김지용  
 지휘 이기선 | 연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출연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극단\_특별공연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제1기  
**어린이 뮤지컬 '피터팬'**

8월 중(시간, 장소 미정)  
 원작 제임스 매튜 베리 | 대본, 작사 강보람  
 작곡 전현미 | 연출 김지용



안데르센  
**'미운오리새끼'**

문화 | 사랑채 9.28.(화)~10.23.(토) 11:00am  
 (일요일 공연 없음) ※ 평일 단체, 토요일 일반  
 All Seats 10,000원  
 원작 안데르센 | 연출 김지용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_정기연주회

제64회 정기연주회  
**화려한 전성기, CLIMAX**

문화 | 대극장 3.19.(금)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 협연 피아윤



제65회 정기연주회  
**노련함, VETERAN**

문화 | 대극장 9.24.(금)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제66회 정기연주회 및 2021년 송년음악회  
**겨울...차이콥스키**

문화 | 대극장 12.2.(목)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_특별연주회

2021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문화 | 중극장 5.21.(금)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2021 렉처콘서트

문화 | 대극장 8.12.(목)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청소년 실내악의 밤

문화 | 챔버홀 10.23.(토)~10.24.(일) 5:00pm  
 All Seats 2,000원  
 지휘 이명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_정기연주회

제158회 정기연주회  
**제비던**

문화 | 대극장 5.29.(토) 7:00pm  
 All Seats 2,000원  
 지휘 김수현



제159회 정기연주회  
**양탄자타고 음악여행 II**

문화 | 대극장 9.11.(토) 5:00pm  
 All Seats 2,000원  
 지휘 김수현



제160회 정기연주회  
**Santa, Jazz Unplugg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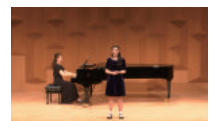
문화 | 대극장 12.17.(금) 7:30pm  
 All Seats 2,000원  
 지휘 김수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_특별연주회

향상음악회

문화 | 챔버홀 2.19.(금)~2.20.(토)  
 금 7:30pm 토 5:00pm  
 All Seats Free



제34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대극장 11.5.(금)~11.6.(토)  
 금 7:30pm 토 5:00pm  
 All Seats Free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공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Package Ticket

2021-22  
BSCC

## 프리미엄 패키지(40%)

■ V+R 320,000 > 192,000    R 300,000 > 180,000    S 210,000 > 126,000

- 프리미엄 1. 피아니스트 임동민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 프리미엄 2. 낭만희극 <십이야(十二夜)>
- 프리미엄 3. 안은미컴퍼니 <A-드래곤>
- 프리미엄 4.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 프리미엄 5. 콘서트 오페라 <이고르공>

\* 최고등급 V+R 교차 예매 가능

## 연극/뮤지컬 패키지(30%)

■ R 170,000 > 119,000    S 120,000 > 84,000    A 80,000 > 56,000

- 연극/뮤지컬 1. 낭만희극 <십이야(十二夜)>
- 연극/뮤지컬 2. 연극 <흑백다방>
- 연극/뮤지컬 3.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 연극/뮤지컬 4. 연극 <단편소설집>

## 발레/무용 패키지(30%)

■ V+R 240,000 > 168,000    R 200,000 > 140,000    S 120,000 > 84,000

- 발레/무용 1. 에이프만 발레<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 <안나 카레리나> (작품 중 택 1)
- 발레/무용 2. 샹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호두까기인형>
- 발레/무용 3. 이정윤 안무신작 <MOTI/어디로부터>
- 발레/무용 4. 안은미컴퍼니 <A-드래곤>

\* 최고 등급 V+R 교차 예매 가능

## 클래식/오페라 패키지(30%)

■ V+R 310,000 > 217,000    R 260,000 > 182,000    S 190,000 > 133,000

- 클래식/오페라 1. 피아니스트 임동민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 클래식/오페라 2. 프레데리크 기 피아노 리사이틀
- 클래식/오페라 3. 비엔나 & 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
- 클래식/오페라 4. 콘서트 오페라 <이고르공>

\* 최고 등급 V+R 교차 예매 가능

## NT Live 패키지

■ 40,000 > 28,000

- NT Live 1. 워 호스 War Horse
- NT Live 2. 리어왕 King Lear

## <인문학\* 콘서트> 패키지

- 인문학\* 콘서트 6편 동시 구매 시 40% 할인
- 인문학\* 콘서트 4편 이상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인문학\* 콘서트 2편 이상 동시 구매 시 20% 할인



# Season Program

## <시네 오페라 초이스> 패키지

- '시네 오페라 초이스' 4편 동시 구매 시 40% 할인
- '시네 오페라 초이스' 3편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시네 오페라 초이스' 2편 동시 구매 시 20% 할인

## 자유 패키지

- 부산문화회관/시민회관 기획공연 중 5편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부산문화회관/시민회관 기획공연 중 3편 동시 구매 시 20% 할인
- \* NT-Live, 인문학\* 콘서트, 시네 오페라 초이스,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2021 디즈니 인 콘서트, 신비아파트 시즌4, 알사탕, 피카로의 결혼, 조수미&이무지치, 2021 제야음악회 공연은 패키지에서 제외
- \* 자유 패키지는 동일 등급에 한해 구입 가능

## 패키지리켓 오픈: 2021. 1. 19.(화) 오후 2시

### 패키지 구매 시 유의사항

- 패키지 예매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와 고객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온라인예매: www.bscc.or.kr
  - 고객센터 전화예매: 051-607-6000
- 모든 패키지는 동일 좌석등급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동일공연 중복선택 불가)
- 모든 패키지는 묶음구성이므로, 공연별 편당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모든 패키지는 구성공연의 첫 공연 시작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패키지 취소는 첫 공연 전날 오후 5시까지, 전화 취소만 가능합니다.
  - 단, 첫 공연이 일요일 또는 월요일일 경우, 그 전 주 금요일 5시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 패키지 구성 공연 중 일부 취소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연은 패키지 할인율을 적용해 환불됩니다.
- 패키지 구성공연의 상황에 따라 패키지 예매가 조기매진될 수 있습니다.

## 오시는 길

### 부산문화회관



지하철 2호선 대연동역 하차,  
5번 출구로에서 유인 교차로 방향으로  
도보 10분



• 시내버스 51번, 68번, 134번, 138번  
• 마을버스 남구9번, 남구10번



셔틀버스

• 저녁시간  
공연 시간 1시간 전 / 30분 전 2회 운행  
(※ 공연 시작시간에 따라 운행시간 변경)  
• 낮시간  
모든 공연 시작 30분 전 1회 운행

### 부산시민회관



1호선 범일역 하차, 2번 출구(도보 10분 소요)  
2호선 문현역 하차, 3번 출구(도보 3분 소요)



• 시내버스 2번, 68번, 11번, 80번, 99번, 83-1번, 63번, 57번, 138번, 23번, 83번, 10번, 108번, 81번, 43번, 52번, 5-1번, 22번, 40번, 134번, 27번, 26번, 41번, 82번, 101번, 42번, 1583번, 24번  
• 마을버스 남구3번, 남구5번  
• 좌석버스 1000번, 1003번, 1004번

## 공연문의 및 전화예매

### ▪ 가능시간

평일 09:00~18:00

###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센터

051-607-6000

ARS ① 한국어 문의

ARS ② 외국어 문의

#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 회원가입

가입신청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000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 공통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10일 이내) · 선 예매 서비스제공(일부공연 제외)
-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1년)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VIP

연 회 비 : 10만원  
 초 대 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마감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좌석 중에서 예약 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 ※ 지정된 기획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를 통해 따로 공지 (조기마감)
- ※ 부산시립예술단: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연 회 비 : 5만원  
 초 대 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MEMBER

교향악단 |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 무용단 | 극단

연 회 비 : 3만원  
 초 대 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가입단체 공연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 ※ 가입단체 초대권 증정, 비가입단체는 예술단 공연 입장료의 할인이율에 달라질 수 있음.

## (재)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선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2021년부터 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 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 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센터 TEL. 051)607-6000 FAX. 051)607-6119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법인 가족과 나누는 특별한 시간, 더 큰 문화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 BSCC Business Membership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법인이라면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 01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 북 교환권으로 유료 판매하는 공연 프로그램 북을 교환해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즐기세요. ※ 선예매 서비스 제공

#### 02 멤버십 전용 카드 및 이벤트 제공

회원카드에 기업 로고를 표기해드립니다. 법인회원 멤버십을 위한 회원 전용 초청 이벤트로 예상치 못한 초대의 즐거움까지 함께 누리보세요.

#### 03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 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발급 카드)		500만 원(50매)	300만 원(30매)	100만 원(10매)
공통혜택		회원카드 기업 로고 표기   공연 및 전시할인(20~50%)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발송   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제시 시)   회원 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   문화회관 주차장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제휴업체 할인(업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등급별 추가 혜택	기획공연 유료 프로그램 북 교환권	90매	60매	30매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6개월	3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광고	2회	1회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6개월	3개월	1개월
	회관 공식 SNS 홍보(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 블로그)	6개월	3개월	1개월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개발팀(051-607-6114~7, www.bscc.or.kr)



# 특별한혜택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Busan Cultural Center

# VIP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 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21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 한국을 대표하는 형제 피아니스트의 첫 듀오 무대 피아니스트 임동민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3월 6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20매) **종료**

##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워 호스(War Horse)>, <리어왕 (King Lear)>

4월 24일(토), 10월 23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선착순 20매)

## 뉴에이지의 거장, 피아노의 음유시인 2021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5월 28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20매)

## 프랑스를 대표하는 베토벤 스페셜리스트 프레데리크 기(Frédéric Guy) 리사이틀

6월 15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20매) **취소**

## 빈필과 베를린필의 매력적 만남 비엔나 & 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

6월 22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20매)

## 은반 위에 펼쳐지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호두까기인형

7월 31일(토) 오후 2:00, 5:00, 8월 1일(일)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당 선착순 R석 20매) **취소**

## 그때 그 시절, 우리들의 영원한 히어로 썸머 나이트 콘서트

8월 21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 감동을 넘어선 마법의 시간 2021 디즈니 인 콘서트

8월 28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20매)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새로운 시선, 차세대 예술

**2021 부산신진예술페스티벌**

8월 13일(금)~8월 24일(화)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및 부산시민회관(회당 R석 20매)

2021 BSCC 제작공연 시리즈 I

**이정윤 안무 신작**

**<MOTI/어디로부터>**

9월 3일(금) 오후 7:30, 4일(토)~5일(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20매)

생존경쟁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우정

**XXI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9월 9일(목) 오후 7:30, 10일(금) 오후 2:00,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20매)

셰익스피어 고전에 대한 한국적 재해석

**낭만희극 <십이야>**

9월 17일(금) 오후 7:30, 18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선착순 R석 20매)

가해자와 피해자의 숨막히는 심리게임

**흑백다방**

10월 23일(토)~10월 24일(일)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선착순 R석 20매)

얼어버린 두 손의 천재음악가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11월 5일(금) 오후 7:30, 6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20매)

2021 BSCC 제작공연 시리즈 II

(재)부산문화회관&파리 테아트르 드 라 빌

리옹댄스비엔날레 공동제작

**안은미컴퍼니 <A-드래곤>**

11월 26일(금) 오후 7:30, 27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선착순 R석 20매)

스승의 삶을 흠친 제자의 딜레마

**단편소설집**

12월 17일(금) 오후 7:30, 18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선착순 R석 20매)

성악과 기악의 정점에서 만나는 바로크 음악

**조수미 & 이 무지치**

12월 18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10매)

- \* 1인 1~2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아티스트들의 입국상 어려움으로 해외초청공연이 부득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고객개발팀(051-607-6116)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넷 회장

## 부회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아름다운 사람들 이사장

## 사무처장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 이사회원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 일반회원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욱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 J K 회장  
김 철 춘해병원 의무원장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문민우  
박성복  
박성환 대동병원 이사장  
박혜빈 세종기획 이사  
박홍근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양은진 세무법인 인성  
윤영기 (주)선광 대표이사  
이경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예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현숙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임은자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의화 (전)국회의장  
조성락 속편한내과 원장  
조종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 기본 예우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대극장 좌석 네이밍



예술의 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 원

구분	후원 금액	법인/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이사 회원	500 이상	법인/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2개 좌석
	3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 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 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사무처장 김홍재(010-3560-2511)

# 부산문화회관 플러스 회원 가입 캠페인 EVENT



칼상을 걸려 **플** 하게  
문화를 파워 **러스** 하게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 부산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플러스 회원 가입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온라인 무료 회원인 플러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문자를 통한 공연 알림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공연 정보가 담긴 뉴스레터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 회원 가입으로 설렘과 감동의 순간을 함께하고 푸짐한 경품 혜택도 누리세요!**

## 대상

캠페인 기간 중 가입한 회원

## 가입기간

2021년 3월 2일(화) ~ 6월 30일(수)

## 참여방법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모바일

## 당첨자 발표

2021년 7월 중, 당첨자 개별공지

## 경품내용

선물1	20명	부산문화회관 VIP회원권(10만 원 상당)
선물2	30명	부산문화회관 스페셜회원권(5만 원 상당)
선물3	50명	부산문화회관 예술단회원권(3만 원 상당)
선물4	100명	베스킨라빈스교환권(2만 원/모바일)
선물5	10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모바일)
선물6	100명	부산문화회관 월간지 <예술의초대> 1년 구독권
선물7	100명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5매

### SMS/이메일 수신 동의

플러스 무료 회원의 혜택인 공연 문자 알림과 뉴스레터 수신을 위하여 SMS/이메일 수신 동의는 필수입니다.

### 정보제공 활용 동의

제공해주시는 개인정보는 (재)부산문화회관의 회원 가입 및 공연정보 등을 제공하고 경품 추첨을 위한 용도뿐만 사용됩니다.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신 경우 플러스 회원 가입이 불가능하며, 경품 추첨에 제한이 있습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 플러스 회원 가입 신청서



QR코드로 간편가입

이름

아이디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위해 필요합니다.

전화번호

홈페이지 로그인 시 최초 비밀번호로 설정됩니다.

이메일

주소

이벤트 당첨 시 기재해 주신 주소로 경품이 발송됩니다.





# 2021 시민 뜨락축제

어반피크닉, 힐링 마이 라이프!

**일시** 2021.4.23(금) ~ 2021.5.21(금)

**매주** 금요일 12:20

**장소** 부산시민회관 광장 야외무대

**주최/주관** (재)부산문화회관

일정	단체명	장르
4월 23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클래식
	양상블 별하	국악
4월 30일	마일스톤즈	대중음악
	콰트로마에스트리 성악연구회	클래식
5월 7일	도담양상블	퓨전클래식
	Hugo	밴드음악
5월 14일	만지작 作 음악연구회	재즈
	코코퍼포밍	거리극
5월 21일	친친탱고	탱고음악
	나의 노랑말들	대중음악



칸타타  
뮤지컬

# 아! 나의조국

2021.5.13(목) ~ 14(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예술감독 이기선 / 시나리오·작곡 이진실 / 연출 김지용 / 안무·음직임연출 홍충민 / 무대 황지선 / 음악감독 이현우 / 연주 부산콘서트오케스트라

주최 / 부산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티켓 / R석 20,000원 S석 10,000원 예매 / [www.bscc.or.kr](http://www.bscc.or.kr)

문의 / 051-607-6000 할인 / 50% 등록장애인, 다자녀가구, 임산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학생(초/중/고/대) 3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예술인패스소지자



# 위로의 메시지



## PROGRAM

레너드 번스타인 / 치체스터 시  
Leonard Bernstein / Chichester Psalms

윌리엄 월튼 / 벨사살의 향연  
William Walton / Belshazzar's Feast

지휘 **이기선** (예술감독)  
Ki-sun Lee, Conductor

협연 **고성현** (바리톤)  
Sung-hyoun Ko, Bariton



부산시립합창단




춘천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교향악단

2021. **6.24**(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입장료 R석 20,000원 / S석 10,000원 예매 [www.bscc.or.kr](http://www.bscc.or.kr) 문의 607-6000  
할인 50% 등록장애인, 다자녀가구, 임산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학생본인(초/중/고/대) 3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예술인 패스소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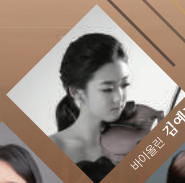
2021

# SOLOISTS CONCERT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2021.5.21(금)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창작합창뮤지컬  
작곡 손민혜

# 제비

편

제비를 통해 듣는  
놀부의 탄생비화

2021. 5.29 | 토 |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김수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연출/각본 김희연 라이브밴드 초록구두 해금 윤해승

COUPON



**30% Discount**

**갤러리안경(전 지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택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10% Discount**

**밥을 짓고, 국을 담다**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Busan Cultural Center

# 배시시(BSCC)TV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채널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유튜브 채널 '배시시(BSCC)TV'입니다.

'배시시' 이름처럼 많은 분들의 입가에 배시시 미소를 짓게 할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 전달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부산의 문화 소식을 쉽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검색

유튜브 검색창에 '배시시tv'를 검색해보세요.



COUPON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  
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1만원 선불카드  
(\$100 이상 구매 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정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 부산문화회관 공연장**

# 이용수칙

안전한 공연관람을 위한 공연장 이용수칙을 안내드리오니  
관객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 공연장 입장 전 발열체크 및 문진표 작성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 마스크 미착용 시 공연장 입장이 제한되오니 개인 마스크를 필히 착용 후 방문해주세요.
- ✓ 티켓을 직접 절취하신 후 티켓의 왼쪽 부분(또는 작은 쪽 부분)을 수표함에 직접 넣어주세요.
- ✓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객석'에 맞게 지정된 좌석에 착석바랍니다.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1. 5. 31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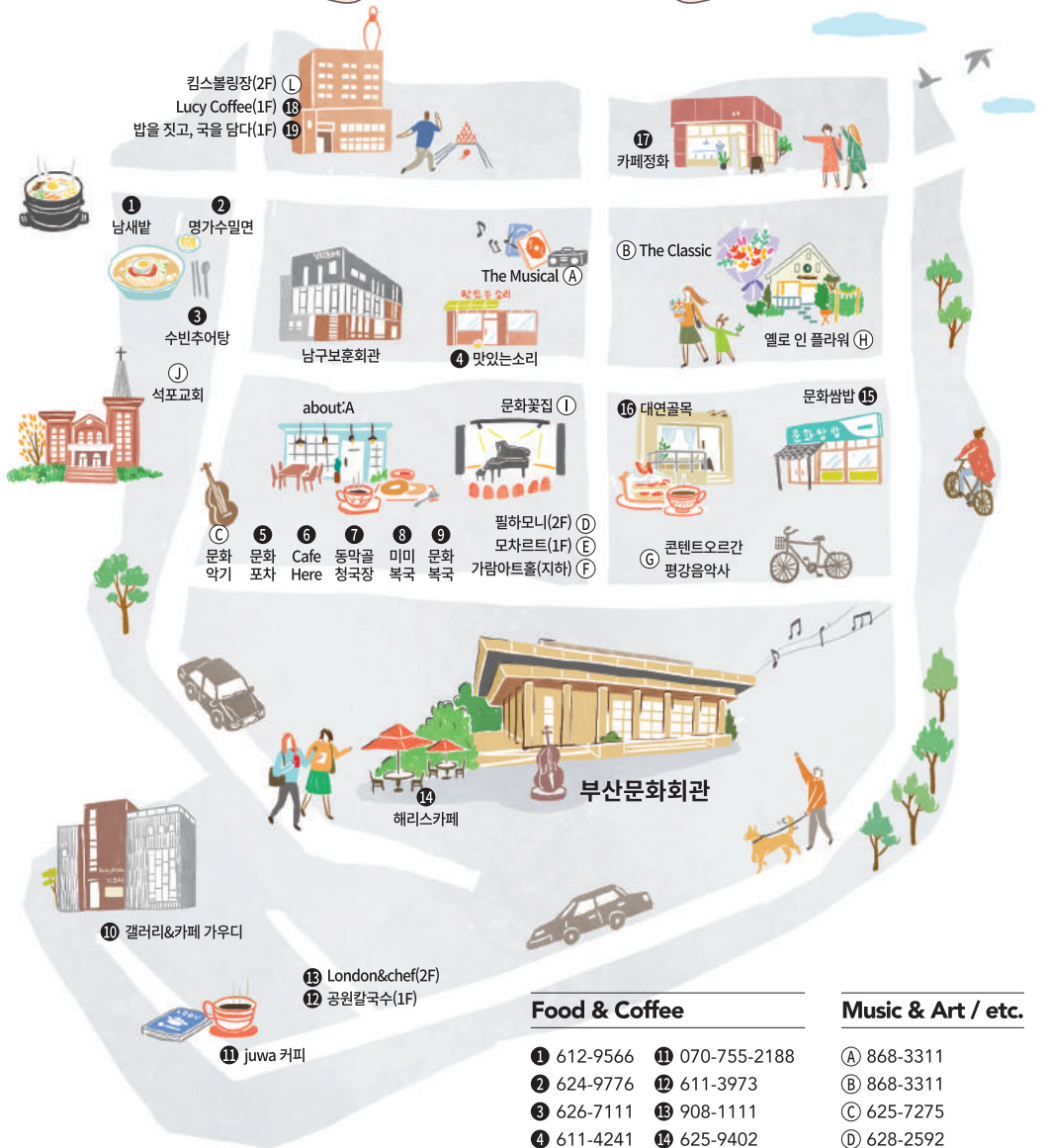


**해리스커피**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Surrounding map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Food & Coffee**

- 1 612-9566
- 2 624-9776
- 3 626-7111
- 4 611-4241
- 5 626-4448
- 6 622-7412
- 7 611-3589
- 8 628-8009
- 9 621-7040
- 10 621-5788
- 11 070-755-2188
- 12 611-3973
- 13 908-1111
- 14 625-9402
- 15 626-2292
- 16 010-3996-6498
- 17 623-0772
- 18 628-3832
- 19 714-3559

**Music & Art / etc.**

- A 868-3311
- B 868-3311
- C 625-7275
- D 628-2592
- F 622-1456
- G 621-6669
- H 626-7900
- I 080-337-3370
- J 622-9722
- L 625-8704



COUPON



**밥을 짓고, 국을 담다**

정식 1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대연스포츠펀터 킹스볼링장 1층  
051)714-3559

COUPON



**노벨안경콘택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COUPON



**갤러리안경(전 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대상  
30% 할인(일부품목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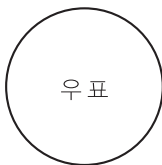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로 50  
051)513-450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받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  
.....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  
.....

3. 개선해야 할 점은?

.....  
.....



I N V I T A T I O N T O T H E A R T S

2021

5 MAY



# 매그넘

MAGNUM IN PARIS

문득, 파리. 눈앞의 파리



Eiffel tower 100th anniversary, Paris, France, 1989 © Elliott Erwitt/Magnum Photos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2021.06.28 - 10.10

# 인 파 리